

R 971-2 | 2022.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5차년도): 캄보디아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Cambodia

허 장 장유진 김령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971-2 | 2022.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5차년도):
캄보디아**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Cambodia

허 장 장유진 김령임



연구 담당

허 장 | 명예선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보고서 집필

장유진 | 연구원 | 2, 4장 집필

김령임 | 연구원 | 2장 집필

연구보고 R971-2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캄보디아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P&B(주)

I S B N | 979-11-6149-612-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캄보디아는 2010년대 말 7%가 넘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4%를 훌쩍 넘는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 재수교한 이후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협력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왔다. 양국 간 무역액은 2021년 1조 1,546억 원으로 그 전 해보다 9% 늘었다. 메콩강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와 FTA를 체결해서 2022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2010년 이래 계속해서 우리의 중점협력 국가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는 중점 지원 분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양국 간에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국제개발협력에 관여하는 많은 기관, 단체들이 캄보디아와의 협력사업을 발굴, 기획할 때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ODA의 중점협력 국가로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를 종합, 연결하도록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캄보디아의 경제와 농업 생산, 유통 등 전반적인 농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캄보디아가 지향하는 국가발전과 농림업 개발의 방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협력 전략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 캄보디아의 국가 및 농림업 분야 관련 개발전략서와 우리나라의 협력 전략,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전략 등 문서를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이와 더불어 ODA 지원 실적 등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 캄보디아 현지의 농림업 상황에 정통한 전문기관에 연구의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위탁기관은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RUA)의 농산업학부(Faculty of Agroindustry) 연구팀으로, 2022년 7~9월의 기간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탁연구 결과는 캄보디아 쌀 산업과 청년농 육성 등 주요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협력 전략 중 중점 협력 분야와 과제를 선정하는 데 참고하였다.

- 가치사슬 단계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2012년 개발한 ‘한국형 ODA 모델’에서의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자 캄보디아의 농림업 관련 공무원, 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2년 7~8월에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12명이 응답하였고 그 내용은 빈도분석과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중점 협력 분야 선정에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캄보디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략, 개발협력 현황 등을 검토한 뒤 △ 농촌 도로, 전기, 식수 등 생활 인프라 △ 농업 소득원 개발, △ 벼 가공(건조, 도정) 역량 제고, △ 발작물 관개 인프라, △ 농산물 건조, 저장, 포장, 운송 등 물류 시설 확대, △ 청년 농업인 위주 농업인력 교육훈련센터 설립, △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체 구성 등 7가지를 주요 개발협력 과제로 선정하였다.
-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과제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중점 협력 분야를 세 가지, 즉 △ 가공과 유통 인프라 개발, △ 영농 기술 교육 및 지도, △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화로 설정하였다.
- 가공과 유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벼 가공시설(건조, 도정 시설 등)을 보급하고, 채소 등 원예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물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정보 시스템을 수립한다. 셋째,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예산과 인적 자원을 충당하도록 한다.

- 영농 기술 교육 및 지도를 위해 첫째, 캄보디아 면(commune) 단위에 시범적으로 현대적 규모의 기술보급센터를 조성하고, 기술보급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훈련센터 등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셋째, 농산물 가공업체, 농자재 공급업체 등 민간부문의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지도 요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끝으로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화 과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마을을 중심으로 기초조직으로서의 단위조합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 육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농산물 판매 등 영농활동 이외에도 신용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적 기능의 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

ABSTRACT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Cambodia

Background of Research

- Cambodia is one of the Korean government's prioritized countries, receiving many development cooperation aids from various public organizations, which raises the necessity to integrate and coordinate them under longer term vision, objectives and action plan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or ODA activities with Cambodia, through the analysis of economic conditions, agricultural situations, nation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of Cambodia, as well as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of Korea.

Method of Research

- The study analyzes development strategic papers for Cambodia's national and agricultural sectors, Korea's ODA strategy, and assistance strategic papers of key development partners, including statistical information on ODA performances.
- A research team in the 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of Cambodia joined the study by implementing a part of research. The research results were utilized for understanding current situations of Cambodia's rice industry and policies about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 A web survey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Cambodia's experts working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cluding academic fields, in order to ask for their opinions about relative importance of value chain stages, and the degrees of relations between seven key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and twenty agricultural and forestry sector cooperation programs of the 'Korean ODA Model.' In total twelve people answered the questionnaire and the answers were analyzed through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and frequency analysis.

Main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 From the review of Cambodia's economy and development strategies, seven key development cooperation issues were derived. They are: △ living infrastructure including rural roads, electricity and drinking water; △ development of agricultural income sources; △ enhancement of post-harvest rice processing capacity (drying and milling); △ irrigation infrastructure for dry fields; △ improvement of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drying, storage, packing and transport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 building of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s especially for young farmers; and △ organization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marketing in villages.
- Through combining the seven issues with our survey results, the study identified three key areas for cooperation: processing and logistic infrastructure development; agricultural technology education and extension; and production and marketing organization at the village levels.
- For the first area, first, it is needed to establish rice processing

facilities (drying and milling), and to construct demonstrative processing complexes for horticultural products including vegetables.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logistic facilities and equipment as well as an information system for distribution and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ts. Third, it is needed to invite the private sector for investments and human resources.

- For agricultural technology education and extension, firstly, it is necessary to form modern demonstrative technology extension centers at the commune levels and to expand technology extension services. Secondly, such facilities as education/training centers should be built for training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Thirdl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lacking extension agents in the public sector, extension service capacities of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agricultural processing enterprises and/or agricultural input suppliers, can be mobilized.
- The last but not the least area of cooperation is to organize farmers at the village level. First, the state should actively support village farmers to organize themselves voluntarily through training and providing incentives to them. Second, the farmers organizations should be developed to become cooperatives which comprehensively perform both economic activities and credit-related work.

Researchers: Heo Jang, Jang Yoojin, Kim Ryeongim

Research period: 2022. 1. 1. ~ 2022. 12. 31.

E-mail address: heoja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1. 배경 및 필요성	3
2. 목적	4
3. 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5
4. 선행 연구 검토	6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9
1. 국가 현황	11
2. 농업 현황	23
제3장 농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47
1.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황	49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54
3. 개발협력 과제	61
제4장 중점협력 분야	63
1.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절차	65
2. 중점협력 분야 선정	66
제5장 개발협력 추진전략	73
1. 추진 방향	75
2. 세부 추진과제	76
제6장 요약 및 결론	87

부록: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ODA 사업 목록	93
참고문헌	99

표 차례

제2장

〈표 2-1〉 국가 개황	13
〈표 2-2〉 거시경제지표	15
〈표 2-3〉 캄보디아 수출입 총액	16
〈표 2-4〉 캄보디아 10대 교역국(2019년 기준)	16
〈표 2-5〉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별 수출입 금액(2020년 기준)	17
〈표 2-6〉 캄보디아 산업구조	18
〈표 2-7〉 캄보디아의 외환 보유액 및 외채 규모	19
〈표 2-8〉 우리나라의 캄보디아에 대한 수출입액 추이(2010~2021년)	21
〈표 2-9〉 국가별, 작물별 경제적 토지 양여(ELCs) 현황	22
〈표 2-10〉 토지 유형 및 지대별 농지 면적	24
〈표 2-11〉 가구당 보유 농지 면적 현황	25
〈표 2-12〉 캄보디아 주요 작물생산 현황	27
〈표 2-13〉 캄보디아 쌀 산업의 SWOT	29
〈표 2-14〉 캄보디아 가축 사육두수 변화 추이	31
〈표 2-15〉 캄보디아 작물 분야 농업에 대한 SWOT	38
〈표 2-16〉 NSDP 및 ASDP에서의 농업개발을 위한 역점 프로그램과 중점 추진 사업	43
〈표 2-17〉 농업 부문 마스터플랜에서의 전략목표별 2030년 달성 목표치	43

제3장

〈표 3-1〉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0~2020년)	50
〈표 3-2〉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지역개발 분야 ODA 사업(2022년 현재)	51
〈표 3-3〉 對캄보디아 ODA SWOT 분석	52
〈표 3-4〉 CPS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실행계획	53
〈표 3-5〉 공여국 및 공여 기관 지원 규모 순위(2010~2020년)	55
〈표 3-6〉 농림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0~2020년)	56
〈표 3-7〉 USAID의 국가개발협력 전략 성과 프레임워크	61

제4장

〈표 4-1〉 가치사슬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67
〈표 4-2〉 개발협력 과제별 중요도	69
〈표 4-3〉 개발협력 과제와 협력 프로그램의 연계성	70

부록

〈부표 1〉 물관리 및 보건위생(661.75억 원)	93
〈부표 2〉 교통(777.28억 원)	95
〈부표 3〉 교육(186.51억 원)	96
〈부표 4〉 지역개발(87.94억 원)	97
〈부표 5〉 기타(비중점)(75.52억 원)	98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	---

제2장

〈그림 2-1〉 캄보디아 지도	13
〈그림 2-2〉 ASEAN 국가들의 지니계수 비교(2005~2019년)	20
〈그림 2-3〉 국가별 경제적 토지 양여(ELCs) 분포	23
〈그림 2-4〉 주별 소농 가구 비율(%)	25
〈그림 2-5〉 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경로	32
〈그림 2-6〉 캄보디아 채소(양배추) 생산-유통-판매 경로	33
〈그림 2-7〉 캄보디아 채소(양배추) 가치사슬	38
〈그림 2-8〉 캄보디아 4기(2019~2023년) 사각전략 개요	41

제3장

〈그림 3-1〉 무상원조 사업 수행 일반 절차	58
〈그림 3-2〉 ADB의 국가협력전략(CPS) 프레임워크	59

제4장

〈그림 4-1〉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절차	66
〈그림 4-2〉 AHP 분석을 위한 농업의 가치사슬 모식도	67

제5장

〈그림 5-1〉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중점협력 분야	85
---	----

약어표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 분석법
AMIS	Agricultural Marketing Information Services	유통정보서비스
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SDP	Agriculture Strategic Development Plan	농업전략개발계획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CARD	Counci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농업농촌발전위원회
CDC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CDP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개발정책위원회
CMP	Master Plan for Crop Production in Cambodia	캄보디아 직물생산 마스터플랜
CP	Country Plan	국가자원계획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CRDB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of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캄보디아 재건 및 개발이사회
CSDG	Cambodi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캄보디아 지속가능개발목표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DCPS	Development Cooperation & Partnerships Strategy	개발협력 파트너십 전략
DSC	Drying and Storage Center	건조저장시설
DP	Development Partner	개발 파트너
ELC	Economic Land Concessions	경제적 토지 양여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세계식량농업기구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개발협회
IDP	Industry Development Plan	산업개발정책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R	Intermediate Result	세부 목표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PIA	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자기개발국가
LMICs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하위 중간소득 국가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캄보디아 농림수산업부
ME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경제재무부
NIS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국립 통계 기관
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국가전략개발계획
NTFP	Non-Timber Forest Products	비목재 임산물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D	Project Document	사업기획서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GC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캄보디아 정부
RPC	Rice Processing Complex	종합미곡처리장
RUA	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 무역개발회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VDC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마을개발위원회

제1장

서론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은 1970년대 ‘킬링필드(killing field)’의 아픈 역사가 있는 반면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정치, 경제적 관계도 깊어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6%에 달하였다(ADB, 2021b, p.1).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도 상당해서, 2010년 우리나라가 중점협력 국가 리스트를 처음 발표한 이래 계속 중점협력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도에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된 ODA 규모는 각각 1,004억 6,000만 원, 1,789억 원에 달한다(관계부처 합동, 2022, p.200). 특히 우리 정부가 작성한 이 나라와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은 농림업 분야(지역개발)가 협력이 집중되어야 할 핵심 분야의 하나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이 나라에 대한 농림업 분야 ODA는 2010년 이래 10년간 농림업,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연평균 약 500만 달러어치(약 62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전체의 4%가량이었다. 2022년 전체 ODA 1,789억 원 가운데 ‘지역개발’로 분류된

사업의 사업비 총액은 87억 9,400만 원이어서 4.9% 정도이다(관계부처 합동, 2022, p.261).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서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 캄보디아에 ODA를 지원하는 기관은 2022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등이 있다. 이밖에 다른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 기상청,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관세청,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타 분야의 사업 가운데에는 지역개발, 농림업 분야와 사업내용 혹은 지역 차원에서의 연계가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 의해 여러 규모의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전략에 의해 연계,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국가협력전략(CPS)이 이를 위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며, 더 명확한 분야별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CPS를 보완하고 농림업 개발 지원 등 캄보디아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나라의 개발협력 수요 및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을 고려한 중점 추진 분야의 설정 등 중장기 관점에서의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목적

이 연구는 캄보디아의 경제와 농업 생산, 유통 등 전반적인 농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캄보디아가 지향하는 국가발전과 농림업 개발의 방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협력 전략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개발협력 사업들이 농림업 분야에서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3. 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이 연구의 범위는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 ODA의 중점협력 추진 분야와 주요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국가 및 농림업 분야 관련 개발전략서와 우리나라의 협력전략, 주요 국제기구와 공여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 전략 등 문서를 살펴보는 문헌조사와 더불어 ODA 지원 실적 등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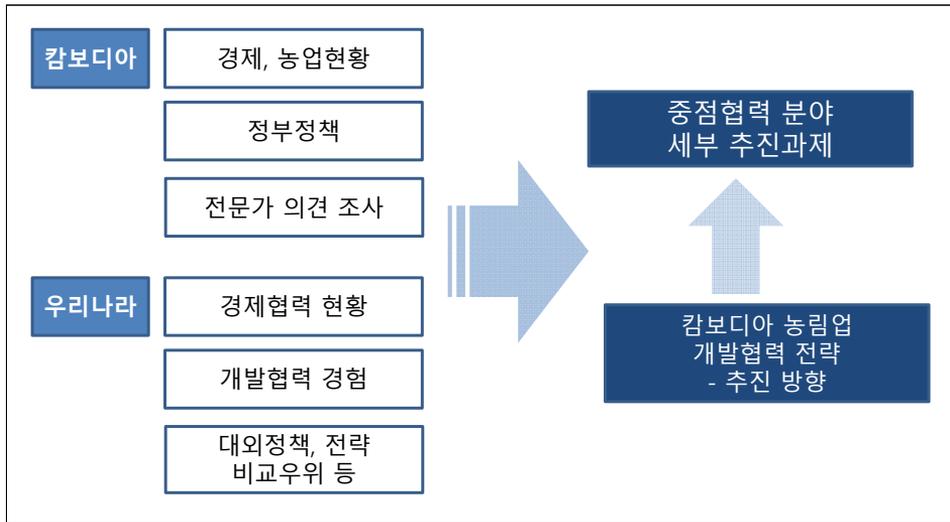
특히 캄보디아 현지의 농림업 상황에 정통한 전문기관에 연구의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위탁기관은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RUA)의 농산업학부(Faculty of Agroindustry) 연구팀으로, 2022년 7~9월의 기간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탁연구 결과는 캄보디아 쌀 산업과 청년농 육성 등 주요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협력전략 중 중점협력 분야와 과제를 선정하는 데 참고하였다.

가치사슬 단계별 중요도를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2012년 개발한 ‘한국형 ODA 모델’에서의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캄보디아의 농림업 관련 공무원, 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2년 7~8월에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두 12명이 응답하였고 그 내용은 빈도분석과 계층화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고 중점협력 분야 선정에 참고하였다.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캄보디아의 일반적 현황과 경제 및 농림업 현황을 제시하였다. 국가전략과 농림업 관련 전략의 내용을

정리, 소개하였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제3장은 캄보디아에 대한 ODA 지원 실적을 국제사회, 우리나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캄보디아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였고, 제5장은 이를 토대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제6장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과 결론이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4. 선행 연구 검토

오윤아, 김미림(2017)은 캄보디아가 전통적인 의류, 신발 등 주력 수출산업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업개발정책(Industry Development Plan: IDP) 2015~2025’을 통해 이들 산업의 부가가치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 경공업 육성,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관광업 육성 등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고 소개한다.

특히 농업에서는 쌀, 카사바, 고무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저자들은 농업 분야에서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농업 생산 기반 확충과 수입검역 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고, 우리나라와의 농업 분야 협력에서는 역량 강화와 수출 인프라 투자, 시장 개발 등이 대상 분야라고 설정하였다(오윤아, 김미림, 2017, p.6, pp.30-31). 그러나 세부적인 분석 결과에 따른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김동환(2016)의 연구는 캄보디아의 벼, 카사바, 청과물의 가치사슬 단계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개선전략으로는, 첫째, 주요 산지에 저장고, 가공공장,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 유통센터(APC)와 같은 부가가치 증진 시설을 복합 산업단지 형태로 건립하도록 한다. 둘째, 대도시 지역에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 혹은 현대화하고, 운영도 선진화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각종 지원 정책을 확충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농산물 등급화 및 표준화, 식품 안전성 검사, 유통정보 제공, 유통 통계 개선, 유통 종사자 대상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교육, 관련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캄보디아 농림업 분야에서의 세부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대응 정책에 관한 최근의 분석을 살펴보면, 조선미, 허장(2020)이 채소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농민조직과 교육, 관련 정책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선미(2019)는 캄보디아의 산림 현황과 관련 정책, 임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정만, 김종선(2020)은 축산 부문, 특히 가축 질병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도원, 최종산(2015)은 발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과 관련된 용수 등 농업환경을 살펴보고 작물 재배와 판매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인프라 확충, 교육과 인력 지원, 유통 개선과 농민 조직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농림업 내에서도 세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사업 분야를 모색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jmani et al.(2019)은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농산물의 수출 다각화 현황을 분석

하였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쌀은 동남아시아와 EU로 수출 대상국이 다각화되었으나, 그 밖의 농산물은 2~3개 국가로 크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캄보디아가 농산물 수출을 확대,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수출 잠재력이 높고 경쟁이 심하지 않은 작물, 가령 옥수수과 전분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한다.

Goletti & Sovith(2016)는 캄보디아의 농업은 생산성(productivity)의 제고, 비즈니스로서의 농업을 통한 수익성(profitability)의 향상,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competitiveness)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Goletti & Sovith, 2016, pp.28-29). 특히, 작물 분야에서의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작물 가운데 캄보디아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8개의 작물을 선정하고, 각각의 가치사슬 단계별 주요 이슈,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SWOT)을 분석한 뒤, 2030년을 목표로 비전과 개선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과 사업들, 소요 예산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에 제안하였다. 8개의 작물로는 쌀, 옥수수, 카사바, 녹두(mung bean), 망고, 캐슈너트, 후추, 채소 등을 선정하였다.

전지민, 한상일(2019)은 캄보디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혁신과 네트워크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네 개의 이론적 유형을 만들고 각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실제 사례를 찾아내어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그 분석 결과에 따라 협동조합이 빈곤을 극복하고 일자리 제공과 농민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며, 생태적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도록 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갖추어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형을 개발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캄보디아의 농림업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특히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향후 5년 내외의 기간을 대상으로 현상과 전망의 분석에 기초한 협력전략을 제시한 문헌은 없으므로 이 연구는 그러한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국가 및 농업 현황

1. 국가 현황

1.1. 일반 현황

캄보디아(정식 국명은 캄보디아 왕국, Kingdom of Cambodia)는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베트남·라오스·태국과 접경하고 있다. 전체 면적은 18만 1,035km²로, 남한의 1.8배, 한반도 전체의 약 80%이다. 남북 간 길이는 450km, 동서 간 길이는 580km이며, 해안선은 340km이다.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인데 20~40℃의 기온 분포로 3~4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서늘하다. 대체로 5~11월은 우기이며, 12~4월은 건기로 분류된다.¹⁾

총인구수는 2021년 기준으로 1,634만 명이고, 수도인 프놈펜(Phnom Penh)의 인구는 약 228만 명이어서,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한다. 크메르(Khmer)족이 대부분이어서 전체의 97%이며, 참(Cham)족, 고산족 등이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1,200만 명 이상이어서 전체의 75% 내외이다.²⁾

1) 외교부(<https://www.mofa.go.kr/>). 검색일: 2022. 8. 4.; KOTRA 해외시장뉴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 검색일: 2022. 8. 4.

행정구역은 전국을 24개 주 및 1개 수도(프놈펜)로 나누고, 그 아래에 시·군·구가 있으며, 다시 면과 동, 그리고 촌으로 구분된다. 프놈펜의 경우 산하 행정단위는 구(khan)-동(sangkat)-촌(village/phum)으로 이어지며, 주(province)의 경우 군(district/srok)-면(commune/khum)-촌(village/phum) 혹은 시(municipalities)-동(sangkat)-촌(village/phum)이 있다.³⁾

공용어는 크메르어이다.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남방불교) 신자이고 헌법에 서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부 형태는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이 국가원수이지만 정부 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양원제)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훈 센(Hun Sen) 현 총리는 1985년 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정권을 잡고 있다. 주요 정당으로는 캄보디아국민당, 캄보디아구국당, 훈신펙당이 있다.⁴⁾

인구분포를 보면, 성별로는 2019년 남성이 약 760만 명, 여성이 800만 명 정도이다. 연령별로는 35세 미만이 67%, 35세 이상 65세 미만이 28%, 65세 이상이 5%이어서 젊은 층의 비율이 높다. 평균수명은 2019년 69.8세, 문자 해독률은 80.5%이다(NIS, 2021).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2021년 기준 0.593으로, 191개국 중 146위이다(UNDP, 2022).

2) 외교부(<https://www.mofa.go.kr/>). 검색일: 2022. 8. 4.

3) 외교부. (2019). 캄보디아 개황.

4) 외교부(<https://www.mofa.go.kr/>). 검색일: 2022. 8. 4.; 외교부. (2019). 캄보디아 개황.

〈그림 2-1〉 캄보디아 지도



자료: Green blog(<https://greenblog.co.kr/2020/09/15/%EC%A7%80%EB%8F%84-4%EA%B0%80%EC%A7%80-%EC%A2%85%EB%A5%98-%EB%AC%B4%EB%A3%8C-%EB%8B%A4%EC%9A%B4%EB%A1%9C%EB%93%9C/>). 검색일: 2022. 8. 9.

〈표 2-1〉 국가 개황

구분	내용
국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수도	프놈펜(Phnom Penh, 228만 명)
면적	18만 1,035km ² (한반도의 0.8배)
인구	1,58백만 명('21)
위치	동남아시아, 타이만 연안, 태국과 베트남 사이 동경 103~107°, 북위 10~14°
민족	크메르족(98%), 소수민족(2%)
언어	크메르어(공용어)
종교	불교(98%), 이슬람교(2%)
독립일	1953. 11. 9.(프랑스)
정부형태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
의회 구성	양원제- 상원(62석, 임기 6년), 하원(125석, 임기 5년)

(계속)

구분	내용
주요 정당	캄보디아국민당, 캄보디아구국당, 훈신펙당
국가원수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총리: 훈 센(Hun Sen)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수립	1970. 5월 수교, 1975. 4월 단교, 1997. 10월 재수교
화폐단위	캄보디아 리엘(Cambodian Riel: CR)

자료 : 외교부(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29). 검색일: 2022. 8. 4.;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https://overseas.mofa.go.kr/kh-ko/index.do>). 검색일: 2022. 8. 4.

1.2. 정치

1953년 11월 9일 프랑스가 노로돔 시하누크에게 군사·사법외교권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캄보디아는 보수와 우익, 급진 세력이 첨예한 사상적 대립을 보이며 혼란한 시기를 보냈다. 1970년 3월 28일 우익성향의 론 놀(Lon Nol)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한 뒤 1970년 4월 10일 크메르 공화국(Khmer Republic)의 수립을 선포하였다(허장 외, 2017, p.68).

1978년 12월 베트남군이 무력으로 캄보디아에 침공하였다. 1979년 1월부터 1989년 10월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친베트남 세력과 베트남이 함께 프놈펜으로 들어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뒤, 1993년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UNCTAD 주관하에 1차 총선거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훈신펙당 리나리드 왕자가 제1총리, 캄보디아국민당의 훈 센(Hun Sen)이 제2총리에 취임하게 되었다. 같은 해에 캄보디아 국왕인 노로돔 시하누크가 다시 즉위하였다(외교부, 2019, p.15).

이후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과 야당인 구국당(CNRP)이 대립하며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 등의 사태가 일어나다가 2017년 9월 3일 구국당의 대표 켄 소카(Kem Sokha) 대표가 모반혐의로 체포되고, 같은 해에 구국당이 해산되었다. 2018년 6차 총선이 실시되었으며, 주요 야당의 부재로 국민당이 국회의 전 의석을 모두 차지하였다(외교부, 2019, pp.16-17). 현재 캄보디아의 국왕은 시하누크의 아들인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이며, 훈 센이 37년째 총리직을 맡고 있다.

캄보디아 국회는 상원 62석, 하원 125석으로 이루어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1.3. 경제

최근 캄보디아는 7.5%(2018), 7.1%(2019)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1인당 GDP는 1,588달러, 1,736달러로 상승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22, p.25). 코로나 19로 인하여 성장률은 급락하였는데, 팬데믹 초기에 UN이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1%이며 빈곤율은 17.6%로 거의 배가하여 실업률 4.8%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UN, 2020, p.4). 그러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2022년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률이 4.5%,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반등이 접혀지고 있다.⁵⁾

〈표 2-2〉 거시경제지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GDP(백만 달러)	20,043	22,208	24,599	27,088	25,192	26,187
1인당 GDP(달러)	1,320.3	1,448.1	1,588	1,736.4	1,606.8	1,653.8
GDP 성장률(명목)	10.83	10.8	10.76	10.11	-6.99	2.2
GDP 성장률(실질)	6.9	7	7.5	7.1	-3.1	4
물가상승률(%)	3	2.9	2.4	2	2.9	3
환율(달러, 연평균)	4,058.7	4,050.6	4,051.2	4,061.1	4,092.8	4,098.7
실업률(%)	0.72	0.14	0.143	0.147	0.331	0.611
해외 송금(GDP 중 %)	6	5.8	5.8	5.6	4.9	n.a.
교역액(백만 달러)	30,855	34,078	40,276	46,587	43,379	52,956
수출액(백만 달러)	14,305	15,831	18,413	21,072	20,289	20,126
수입액(백만 달러)	16,550	18,247	21,863	25,515	23,090	32,830
외환 보유액(백만 달러)	8,393	11,262	13,373	17,033	18,564	17,318

자료: IMF(<https://www.imf.org/en/Countries/KHM>). 검색일: 2022. 8. 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코로나19로 인해 대외 교역이 침체하였으나 점차 회복되어 수출과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수출입액은 48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수출이 5.3% 증가했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지만, 수입이 50.3%나 늘어서 무역 적자 폭은 늘고 있다. 한편, 2022년 1분기 수출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한 131억 달러인데 농산물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25.7% 늘었다.⁶⁾

〈표 2-3〉 캄보디아 수출입 총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	363,352	493,136	557,929	700,521	810,385	924,149	1,017,195	1,112,765	1,271,895	1,449,517	1,715,320	1,743,391
수입	521,646	626,539	742,090	875,830	1,030,521	1,160,784	1,222,617	1,359,654	1,685,000	2,047,424	1,888,254	2,849,018
무역 수지	-158,942	-133,403	-184,161	-175,309	-220,136	-236,635	-205,423	-246,888	-413,105	-597,907	-172,935	-1,105,628

자료: IMF(<https://www.imf.org/en/Countries/KHM>). 검색일: 2022. 8. 5.; Worldbank (<https://data.worldbank.org/country/cambodia>). 검색일: 2022. 8. 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웃한 베트남과의 교역도 크게 늘었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80% 늘어나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1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⁷⁾

〈표 2-4〉 캄보디아 10대 교역국(2019년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교역량(a+b)		수출(a)		수입(b)	
	국가명	총교역액	국가명	총수출액	국가명	총수입액
1	중국	8,597,896	미국	4,414,284	중국	7,585,748
2	미국	4,732,639	일본	1,140,012	태국	3,234,431
3	태국	3,741,925	독일	1,081,793	베트남	2,724,846
4	베트남	3,084,042	중국	1,012,147	일본	887,661
5	일본	2,027,674	영국	979,868	인도네시아	772,489
6	독일	1,203,009	캐나다	839,308	대한민국	673,164
7	영국	1,062,967	벨기에	544,485	싱가포르	605,921
8	캐나다	960,965	스페인	518,794	말레이시아	583,754

6) The Phnom Penh Post(<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cambodias-q1-trade-volume-hits-over-13b>). 검색일: 2022. 8. 7.

7) Khmer Times(<https://www.khmertimeskh.com/501057807/cambodia-vietnam-bilateral-trade-remained-steady-at-9-billion-in-2021/>). 검색일: 2022. 8.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계속)

순위	교역량(a+b)		수출(a)		수입(b)	
	국가명	총교역액	국가명	총수출액	국가명	총수입액
9	대한민국	885,722	태국	507,493	홍콩	541,936
10	싱가포르	878,589	네덜란드	464,139	미국	318,354

자료: WITS(<https://wits.worldbank.org/>). 검색일: 2022. 8. 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처럼 교역량이 늘어난 한 가지 이유는 다자간, 양자간 무역협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1월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캄보디아-중국 FTA가 발효되었고, 우리나라와의 FTA도 금년 안에 발효될 전망이다.⁸⁾

〈표 2-5〉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입 품목별 수출입 금액(2020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HS코드 2자리 기준)	총수출액	품목(HS코드 2자리 기준)	총수입액
1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61)	5,188	뜨개질 편물(60)	2,367
2	진주 등의 귀금속(71)	3,039	광물성 연료 및 이들의 증류물 등(27)	1,920
3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 의류와 그 부속품(62)	2,29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속품(87)	1,705
4	신발류, 모자류 등 및 이들의 부분품(64)	1,123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84)	1,224
5	가죽제품, 핸드백 및 기타 유사 제품(42)	1,009	전기와 그 부분품(85)	1,183
6	전기와 그 부분품(85)	762	진주 등의 귀금속(71)	903
7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등(94)	638	인조단섬유(55)	897
8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속품(87)	559	플라스틱 및 그 제품(39)	837
9	곡물(10)	471	지와 판지 및 그 제품 등(48)	523
10	인쇄 서적, 신문 등(49)	384	면(52)	451

자료: UN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 8. 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캄보디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은 봉제업과 농업, 관광업이다(ADB, 2019, p.1). 산업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표 2-6〉 캄보디아 산업구조

단위: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농업	33.9	34.6	33.5	31.6	28.9	26.6	24.7	23.4	22.0	20.7	22.7	22.8
산업*	21.9	22.1	23	24.1	25.6	27.7	29.4	30.8	32.3	34.2	34.6	36.8
제조업	14.7	15.2	15.1	15.5	15.4	16	16	16.2	16.3	16.3	16.2	17.9
서비스업	38.3	37.5	37.8	38.5	39.7	39.8	39.9	39.7	39.5	38.8	36.6	34.2

주: 산업*에서 건설업을 포함하였음.

자료: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country/cambodia>). 검색일: 2022. 8. 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차 산업인 농업은 GDP에서의 비율이 20%를 약간 상회하는데 이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중저소득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ADB, 2021b, p.2).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미비, 생산성 향상 기술 미흡, 농자재 생산 및 수급 부족, 유통구조 및 농업연구 R/D 투자 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작물 생산성은 낮다(외교부, 2019, p.70).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인접국보다 낮으며, 건기에는 생산성은 높지만, 관개시설이 부족해서 재배면적이 우기 재배면적의 19.7%에 불과하다(외교부, 2019, p.70).

제조업 분야에서는 봉제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외교부, 2019, p.70). 봉제업은 캄보디아에서 거의 유일한 2차 산업으로, 관련 제품 수출이 전체 수출의 72%를 차지한다. 수출 대상국은 미국(24%), 유럽(46%), 일본(19%) 등이다. 원자재 생산업체가 부재하여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봉제 업체들이 단순 가공 공정을 통해 재수출하는 방식이다(외교부, 2019, p.71). 하지만 전기요금과 물류비가 비싸고 노동생산성이 낮아서 저임금 요인을 제외하면 봉제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높은 대외개방성, 정치적 안정, 낮은 세금 등에 힘입어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경제에서 이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외교부, 2019, p.71).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36.5%이어서 높은 편이다. 서비스업에 속하는 관광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에 비해서는 97%, 2020년에 비해서는 85%나 감소하였는데, 2021년 말 이후 회복세를 보인다. 2022년 캄보디아 신년 연휴 3일간 관광객 수가 460만 명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주캄보디아 대사관, 2022a; 2022b).

개발에 드는 자금의 원천을 보면, 캄보디아-중국 FTA 체결 등의 요인으로 해외 직접투자(FDI)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FDI가 GDP의 13%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ODA를 통한 자금 유입의 비율은 6% 정도로 감소하였다. 국내 세수(domestic revenue)는 20% 정도를 차지하며, 캄보디아 자국민의 민간투자도 12% 정도로,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의 비율은 줄고 국내 자금 유입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ADB, 2019, p.2; RGC, 2019a, pp.2-4). 하지만 FDI가 설비나 기계 등의 고정자본 형성보다는 금융 부문, 즉 건설, 부동산 분야에 몰리고 있어서(약 35%), 국제 금융 여건의 변동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다(ADB, 2019, p.3).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낮은 소득수준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2018년 추정치로는 약 100만 명의 캄보디아 국민이 태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불법 이주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다(ADB, 2021b, p.6).

〈표 2-7〉 캄보디아의 외환 보유액 및 외채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외환 보유액	3,255	3,450	4,094	4,516	5,626	6,883	8,393	11,262	13,373	17,033	18,564	17,318
총 외채	4,010	4,655	6,749	7,619	8,319	9,436	10,060	11,425	13,533	15,329	17,562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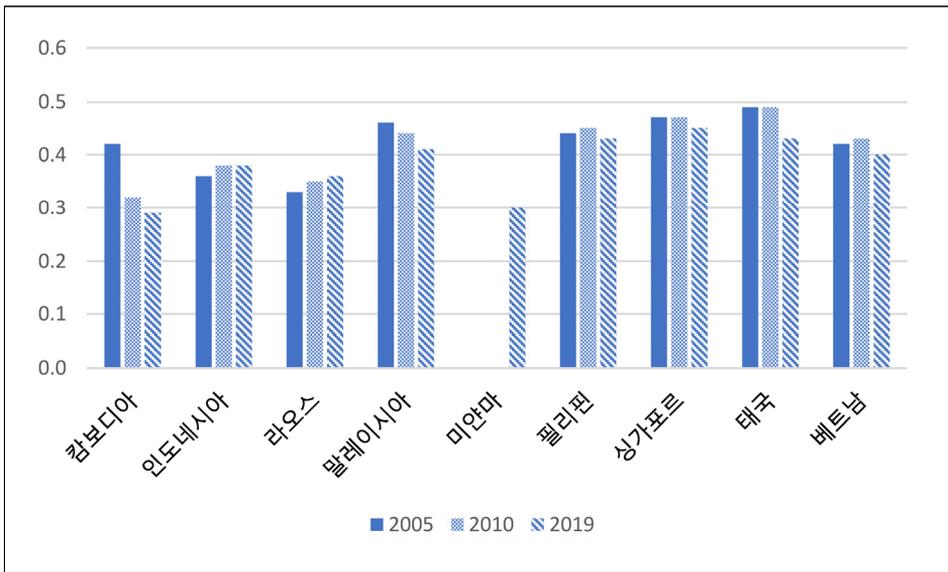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https://www.imf.org/en/Countries/KHM>). 검색일: 2022. 8. 5.;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country/cambodia>). 검색일: 2022. 8. 4.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사회 현황

하루 1인당 소득이 2.7달러 이하이면 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캄보디아에서는 2022년 인구의 약 18%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프놈펜(4.2%), 도시 지역(12.6%)에서 가장 낮고, 농촌지역(22.8%)에서 높다.⁹⁾ 빈곤층의 90%가량은 농촌에 거주함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ADB, 2021b, p.5).

지니(Gini)계수는 2005년에 캄보디아가 0.42로 라오스, 인도네시아보다 높고 베트남과 비슷했으나, 2017년에는 아세안 국가에서 가장 낮았다(ASEAN, 2021, p.29).

〈그림 2-2〉 ASEAN 국가들의 지니계수 비교(2005~2019년)



주: 필리핀은 2018년,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2017년, 라오스는 2013년이 가장 최근 자료이며, 2015년 이전 미얀마 자료는 없음. 브루나이 자료는 없음.

자료: ASEAN(2021, p.29).

9)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country/cambodia>). 검색일: 2022. 8. 5.

1.4.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추세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직전까지 빠르게 늘어서 2019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수출, 수입 모두 줄어서 8억 8,532만 달러가 되었다(한국수출입은행, 2022).

〈표 2-8〉 우리나라의 캄보디아에 대한 수출입액 추이(2010~2021년)

단위: 천 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	332,998	450,780	593,295	614,644	654,419	652,765	572,856	603,846	660,426	696,530	567,210	623,848
수입	43,445	87,343	126,359	136,313	193,994	216,527	239,773	261,326	314,477	335,922	318,112	341,516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https://stat.kita.net/>). 검색일: 2022. 8. 5.

캄보디아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기호식품, 편직물, 알루미늄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의류, 신변잡화, 산업용 전기 기기, 임산 부산물 등이다.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양국 간 무역액은 2021년에 9억 6,536만 달러(약 1조 1,546억 원)로 전년도보다 9% 증가하였다.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에 수출한 금액은 2021년 3억 4,150만 달러(약 4,085억 원)이다. 2022년 1분기에는 2억 3,440만 달러(약 2,969억 원)의 무역액을 기록하여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8%나 늘었다.¹⁰⁾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는 2021년 상반기에 410만 달러(약 49억 원)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¹¹⁾

우리나라는 메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캄보디아와 FTA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 초 자국의 의회 비준과 국왕 서명을 마쳤다(주캄보디아 대사관, 2022b). 한-캄 FTA가 체결되면 캄보디아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92%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ASEAN 국가와 우리나라 등 15개국이 참가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2022년 초 공식 발효되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었다.¹²⁾ 이와 같은 일련의 관세장벽 철폐 조치에 따라 농업 부문을 포함하여 양국의 교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교류 협력은 활발하다.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의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국내 해외조림 업체의 32%가 진출해 있을 정도로 민간의 산림 분야 투자가 활발하다. 2016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산림청 주관으로 메콩강 유역 CLMV 4개국과의 산림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메콩산림협력센터가 설립되었다(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p.19, p.34).

1.5.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대부분은 그 주체가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회사이다. 투자 대상은 농업 분야에서는 고무에 집중되어 있다(Grimsditch, 2017, pp.35-36). 캄보디아는 대기업에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제적 토지 양여(Economic Land Concessions: ELCs)’ 제도를 운용하는데, 한 캄보디아 NGO에 따르면, ELCs 토지가 302건에 218만 9,265ha에 이른다고 한다.¹³⁾ 이들 중 대다수는 캄보디아 국적이 아닌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싱가포르 등 외국 업체이다.

〈표 2-9〉 국가별, 작물별 경제적 토지 양여(ELCs) 현황

구분	국가, 작물별 면적 및 건수
소유권 별	캄보디아 970,013 (127), 베트남 362,515 (55), 중국 384,049 (54), 말레이시아 90,844 (12), 태국 59,663 (7), 한국 56,548 (8), 싱가포르 137,815 (11), 기타 94,123 (14), 알려지지 않음 33,694 (14)
작물별	고무 및 고무 혼합물 946,926 (157), 설탕 122,350 (17), 제지용 펄프 86,492 (10), 카사바 31,814 (9), 팜유 67,811 (8), 기타 581,377 (46), 알려지지 않음 352,49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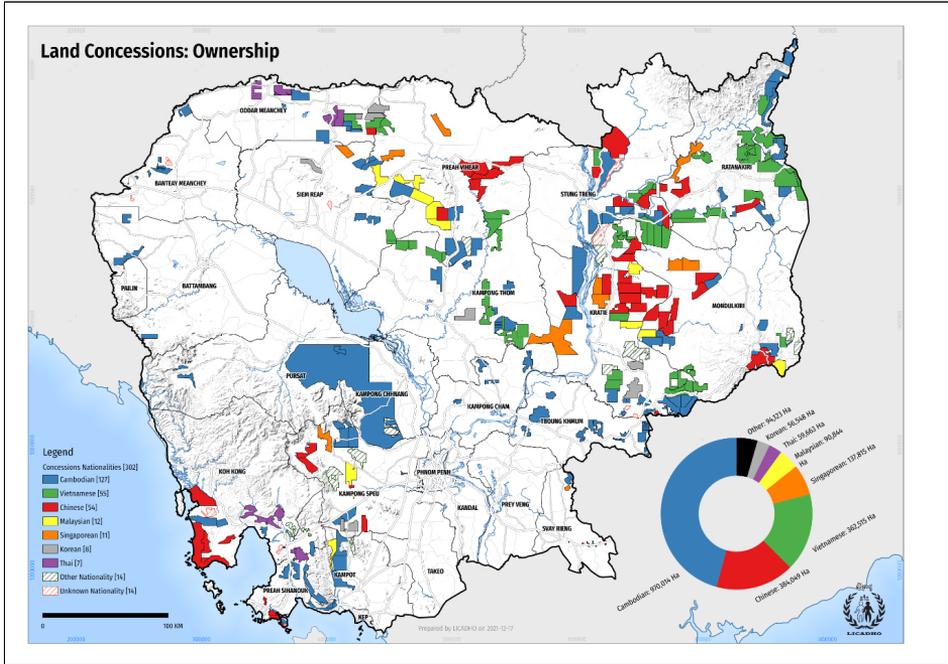
주: 단위는 ha이며 ()안은 건수임.

자료: 캄보디아 인권 촉진 및 지킴 동맹(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https://www.licadho-cambodia.org/land_concessions/). 검색일: 2022. 8. 19.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10. 5.

13) 캄보디아 인권 촉진 및 지킴 동맹(https://www.licadho-cambodia.org/land_concessions/). 검색일: 2022. 8. 19.

〈그림 2-3〉 국가별 경제적 토지 양여(ELCs) 분포



자료: 캄보디아 인권 촉진 및 지킴 동맹(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https://www.licadho-cambodia.org/land_concessions/). 검색일: 2022. 8. 19.

2. 농업 현황

2.1. 농업 일반

캄보디아의 농지는 약 382만 ha로, 대부분은 톤레사프 호수(152만 7,000ha)와 평야 지대(115만 2,000ha)에 논이 형태로 분포한다. 고원, 산간지대에서는 밭작물과 밭벼를 재배한다. 우기, 건기 모두 사용하는 농지는 전체의 11%, 건기에만 사용하는 농지는 10% 미만이다. 텃밭 형태로 사용하는 농지의 비율이 높아서 전체의 12.9%를 차지한다(Ministry of Planning, 2020, p.43).

〈표 2-10〉 토지 유형 및 시대별 농지 면적

단위: 1,000ha, %

구 분	캄보디아	프놈펜	평야	톤레사프호수	해안지대	고원/산간지대
우기 농지	1,956 (51.2)	10 (34.0)	534 (46.3)	832 (54.5)	112 (65.4)	468 (49.8)
건기 농지	372 (9.7)	0	194 (16.8)	162 (10.6)	5 (3.0)	11 (1.2)
우기, 건기	420 (11.0)	6 (22.0)	156 (13.6)	213 (14.0)	12 (7.3)	32 (3.4)
밭(Chamkar) 토지	442 (11.6)	3 (11.1)	78 (6.7)	187 (12.3)	7 (4.0)	167 (17.8)
텃밭	493 (12.9)	4 (14.4)	158 (13.7)	98 (6.4)	26 (15.1)	208 (22.2)
영년생 토지	6 (0.1)	0	4 (0.3)	0	1 (0.8)	0
사유림	1 (0)	0	0	0	0 (0.3)	1 (0.1)
유휴지	128 (3.4)	5 (18.5)	29 (2.5)	35 (2.3)	7 (4.1)	52 (5.6)
기타	1 (0)	0	0	1 (0)	0	1 (0.1)
총 계	3,819 (100)	29 (100)	1,152 (100)	1,527 (100)	172 (100)	938 (100)

자료: Ministry of Planning(2020, p.43).

가구당 보유 농지는 평균 1.3ha로, 토지가 없는 농가가 전체의 23%, 0.5ha 미만 소유 농가가 15%이며, 1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전체의 75.2%, 1~3ha의 농지를 소유한 가구는 17.3%이다. 톤레사프 호수 주변과 고원/산간지대에 비교적 소유 농지의 규모가 큰 농가가 분포한다(ADB, 2021b, p.6; Ministry of Planning, 2020, p.41; NIS, 2020, p.92).

농지로부터의 소득은 채소(ha당 1,394달러), 카사바(ha당 506달러)에서 높은 편이다(ADB, 2021b, p.6).

2.2. 농가와 농촌 인구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67만 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880만 5,000명)의 30.3%이다(Ministry of Planning, 2020, p.83). 대부분의 농가는 4명에서 5명 사이의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의 약 43%이며, 38%는 2~3명이다(Kingdom of Cambodia, 2019, p.53).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의 76.2%에 달하여 중저소득국 평균인 60% 수준보다 상당히 높다(ADB, 2021b, p.3).

전체 빈곤인구의 90%가 농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지역의 소득은 도시에 비해 50~60%에 불과한데, 이나마 2012년의 40~55%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최근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ADB, 2021b, p.5).

2.3. 농업 생산

2.3.1. 생산액, 생산량

□ 개요

농림수산업 부문의 생산액은 2021년에 전체 GDP 대비 22.8%이다. 2015년에는 26.6%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3년 이후 202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0.85%이며, 2019년에는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적도 있어서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다(ADB, 2021b, p.3). 2019년 1인당 농림수산업 생산액을 보면 201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547달러이다.¹⁴⁾

캄보디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은 벼, 옥수수, 카사바, 각종 채소, 사탕수수, 황마 등이다. 벼는 캄보디아의 전체 농지 450만 ha 대부분(70%)에서 재배된다. 그 뒤로는 사탕수수, 담배, 벼 이외의 곡물, 뿌리 작물, 줄기 작물, 콩과 식물 등(20%)이 재배되며, 고무 농장(7%), 바나나, 캐슈너트, 코코넛, 커피, 두리안, 야자유, 후추, 망고, 오렌지, 기타 과일 등의 영년생 작물(4%) 등으로 구성된다(ADB, 2021b, p.7).

〈표 2-12〉 캄보디아 주요 작물생산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벼	재배면적	3,051.5	3,118.2	3,206.5	3,335.9	3,328.8
	수확면적	3,025.6	3,099.8	3,189.5	3,248.1	3,263.8
	생산량	9,334.3	9,952.3	10,518.3	10,891.8	10,885.7
옥수수	재배면적	87.5	115.7	227.3	215.0	200.0
	수확면적	104.1	112.7	226.9	208.2	185.5
	생산량	333.1	542.3	1,231.5	1,231.5	895.4
카사바	재배면적	573.6	651.9	613.9	652.2	656.9
	수확면적	546.4	643.0	612.9	650.5	652.5
	생산량	13,298.1	14,175.5	13,817.3	13,750.1	13,512.8
고구마	재배면적	5.8	3.4	5.7	4.9	7.2
	수확면적	5.7	3.4	5.7	4.9	7.2
	생산량	45.4	24.5	40.8	35.1	54.4
채소	재배면적	47.4	27.3	54.5	57.0	57.3
	수확면적	47.3	27.3	54.4	56.2	57.3
	생산량	405.5	238.1	491.8	639.5	682.0
녹두	재배면적	57.2	37.6	45.4	37.9	34.6
	수확면적	54.1	36.6	45.3	37.5	34.6
	생산량	59.2	49.8	53.6	42.9	38.6
땅콩	재배면적	16.5	12.5	14.4	12.1	9.3
	수확면적	15.5	12.5	14.4	12.1	9.3
	생산량	25.2	19.1	23.1	17.6	14.5
대두	재배면적	66.8	41.6	42.0	46.1	26.1
	수확면적	66.6	41.6	41.9	45.8	25.7
	생산량	96.9	69.4	73.3	91.8	42.1

14)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country/cambodia>). 검색일: 2022. 8. 5.

(계속)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검은깨, 흰깨	재배면적	26.5	14.7	17.0	14.6	13.4
	수확면적	24.7	14.7	17.0	14.3	13.4
	생산량	17.9	13.7	13.3	11.0	9.6
사탕수수	재배면적	19.5	17.5	19.7	20.1	17.0
	수확면적	19.2	17.5	19.1	20.0	17.0
	생산량	709.2	613.4	629.3	691.9	618.3
담배	재배면적	0.5	140.0	6.9	5.7	5.2
	수확면적	6.5	140.0	6.9	5.7	4.9
	생산량	8.1	114.0	9.1	7.5	6.7
황마	재배면적	0.1	72.0	134.0	176.0	155.0
	수확면적	0.2	72.0	134.0	176.0	155.0
	생산량	0.1	78.0	96.0	165.0	139.0

주: 재배면적과 수확면적의 단위는 1,000ha, 생산량의 단위는 1,000톤임.

자료: NIS(2021, p.107).

□ 벼

벼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장려하는 핵심 작물이다. 2018년 재배 면적은 우기에 270만 ha, 건기 60만 ha이다(ADB, 2021, p.7). 벼 생산량은 2009년 750만 톤에서 2019년 1,089만 톤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수요량을 제외한 잉여량은 2018년 580만 톤인데 쌀로 환산하면 374만 톤에 해당한다. ha당 단수는 2009년 2.84톤에서 2018년 3.35톤이 되었다(MAFF, 2020).

캄보디아는 특히 향미(fragrant 혹은 aromatic rice)의 품질이 뛰어나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쌀”로 명성을 얻었으며, Goletti & Sovith(2016, p.41)는 이를 기초로 세계 3대 향미 수출국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세우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향미는 전체 농가의 13.1%에서 생산하는데, 특히 바탐방, 반테이 미엔체이 등 북서 지방에 많은 농가가 재배한다(NIS, 2020, p.34).

관개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벼 생산성은 이웃 나라보다 뒤떨어진다. 우기 쌀 생산성은 태국의 중부지방(ha당 3.8톤)에 비해 30%가량 낮은 수준이며, 관개가 이루어지면 연간 40%까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으로는

국토가 평탄하여 중간 혹은 대규모로 수자원을 저장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ADB, 2021b, p.7, p.26).

Goletti & Sovith(2016, p.47)가 제시한 캄보디아 쌀 산업의 SWOT는 다음과 같다.

〈표 2-13〉 캄보디아 쌀 산업의 SWOT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면적이 넓음. • 수출 가능한 잉여벼가 있음. • 향미의 품질이 우수 • 캄보디아 농업연구개발연구소(CARD)가 40종 이상의 품종을 개발 • 쌀 품질에 대한 국제 평판이 상위급 • 연 200만 톤 이상 가공 역량을 갖춘 현대식 도정 공장이 설치 • 유럽과의 EBA(everything but arms) 교역 • 정부 정책에서 중요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금 부족 • 도정공장 역량에 비해 활용도 낮음. • 공급망 관리 역량이 취약 • 수출 및 생산자 조직이 취약 • 고품질 종자 활용이 어려움. • 대부분 천수농업이며 물관리가 열악 • 건조 및 저장시설이 부족 • 영농을 위한 계약이 비효율적임. • 품질이 보장되지 않음. • 기후변화에의 취약성 증가 • 심한 가격 등락에 노출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향미 수출 선도국 • 환경 보전형 농업 및 효율적인 물 이용 관리로 쌀 생산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됨. • 수확 후 서비스 시설 발전(창고, 건조) • 공급망 관리 개선으로 생산자, 가공업자의 위험성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 관련 중대 재해 • 국제 시장에서의 혼란(가령 식량 위기)

자료: Goletti & Sovith(2016, p.47).

□ 옥수수, 카사바

벼 이외의 작물생산 현황을 보면, 대두, 땅콩, 참깨, 사탕수수, 황마, 담배 등 환금작물의 재배면적은 2012년에 비해 2018년에는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에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채소, 녹두 등은 늘고 있어서 2018년에는 100만 ha 이상을 차지했다(ADB, 2021b, p.9).

옥수수는 벼, 카사바 다음으로 많이 재배하는 중요한 작물이다. 용도를 보면 60%는 사료용, 20%는 식용, 15%는 공산물 생산의 원료용(에탄올, 종이, 페인트, 직물, 의약품 등), 나머지 5%는 종자용이다.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농가가 전국적으로 5~10% 정도이면서 시장 물량의 20% 정도를 공급한다(Goletti & Sovith,

2016, p.58).

2004년 쌀 생산량의 약 10% 정도 생산되던 카사바는 2014년에는 쌀보다 200만 톤 더 많이 생산되었다. 생산된 카사바 대부분은 비공식적으로 베트남과 태국에 수출되며, 공식적으로는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된다. 카사바의 농산업은 체계적이지 않아, 카사바 산업에 종사하는 큰 회사들도 여전히 대량의 물자를 조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한다. 카사바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이지만, 캄보디아에서 카사바를 먹는 용도로 사용하는 양은 전체의 1% 미만으로 극히 일부이다. 그러나 카사바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석 연료 가격의 하락과 공급망 관리 문제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캄보디아에서 카사바를 사료와 전분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대다수의 생산량은 이웃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다(Goletti & Sovith, 2016, p.69).

□ 채소

채소는 상업적 생산보다는 대부분 자급용 생산 수준이다. 생산이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베트남 등지로부터 값싸게 수입되는 채소의 공급에 의존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산의 다각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한 만큼 채소 생산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의지는 높다. 일부 규모화된 채소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채소와 경쟁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채소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캄보디아 경제가 성장하면서 채소의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서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늘고 있다. 벼와 마찬가지로 채소 생산농가의 대부분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중간상인인 수집상 혹은 도매상에게 수확하자마자 생산물을 판매한다(ADB, 2021b, p.19).

국내 생산은 그 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연간 채소 수요량 약 70만 톤 가운데 60~70% 정도만 자급하고 그 밖에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한다. 2018년 채소 수입액은 72만 8,045달러에 이른다(조선미, 허장, 2020).

주로 노지에서 채소가 재배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기후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

건기(11~5월)에는 병해충이 적지만 열 압박(heat stress)에 따라 생육이 어렵다. 우기(5~10월)에는 병해충과 홍수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그러므로 건기에 물 공급이 원활하고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면 채소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조선미, 허장, 2020).

□ 축산

가축 사육두수는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소 278만 두, 물소 45만 두, 돼지 219만 두, 닭 4,040만 수를 사육했다. 돼지의 경우 2018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사육두수가 많이 감소했다. 농가에서 소규모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당 소는 1~3마리, 돼지는 1~5마리 정도이다. 가금류는 2018년 소농이 3,720만 수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ADB, 2021b, p.10).

상업적 축산의 비율은 전체 사육두수의 20% 내외였다가 2019년 양계가 확산하면서 30% 수준으로 늘었다(최정만, 김종선, 2020, pp.62-63).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2015년 상업농의 숫자를 2,856개로 추산하였다. 축산업(생산)의 GDP 비율은 2.6% 정도이다(ADB, 2021b, p.10).

〈표 2-14〉 캄보디아 가축 사육두수 변화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	2,916,709	2,920,314	2,971,722	2,928,534	2,779,762
물소	506,228	523,514	508,656	500,995	447,385
돼지	2,774,364	2,970,624	3,074,283	2,747,855	2,185,924
닭	34,519,073	35,733,761	36,244,939	38,166,751	40,395,453
계	40,753,404	42,183,394	42,834,168	44,375,395	45,855,143
5~10ha 미만	48 (2.1)	1 (2.2)	10 (1.1)	21 (2.9)	2 (1.3)
10ha 이상	12 (0.5)	0	3 (0.3)	5 (0.7)	0 (0.1)
총계	2,256 (100)	46 (100)	907 (100)	725 (100)	15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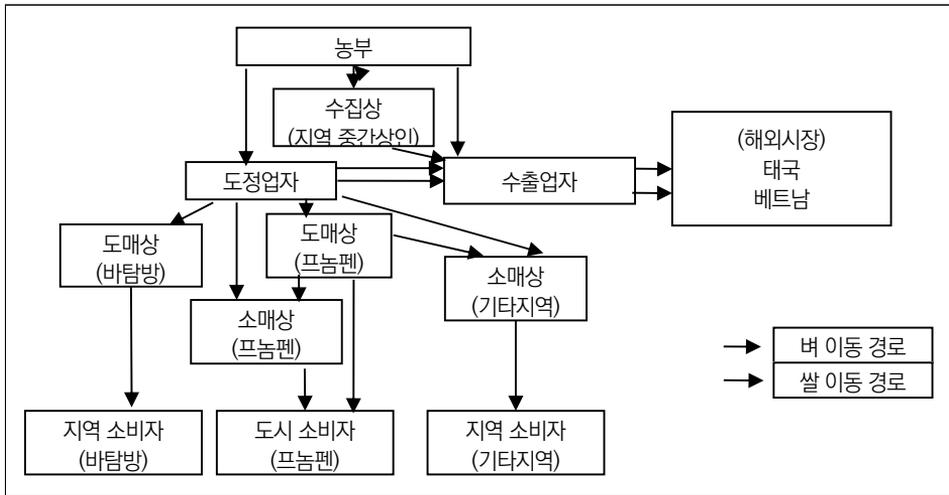
자료: 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2020); 최정만, 김종선(재인용)(2020, p.62).

2.3.2. 가공과 유통

벼는 수확 후 건조, 탈곡, 도정, 운송 및 판매의 단계를 거친다. 수확 후 벼로부터 농가가 얻는 부가가치는 높지 않다. 국내 자급 물량을 초과하는 잉여 벼 생산량이 580만 톤에 달하지만, 물벼의 건조와 건조벼의 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태국과 베트남으로 물벼 상태로 반출되는 양이 상당한데 이는 대부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2015년에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벼의 비공식 수출량은 베트남으로 170만 톤, 태국으로 25만 톤이며, 이 밖에 도정된 상태로도 태국으로 45만 톤가량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DB, 2021b, p.8).

캄보디아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NIS, 2020, p.82), 벼를 자체적으로 도정하는 농가는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한다. 벼 농가 대부분은 수확하자마자 물벼 상태로 지역 중간상인인 수집상에게 판매한다. 코콩(Koh Kong)주가 그 비율이 가장 높아 10.3%에 이른다. 2010년대 초반에 캄보디아 정부는 2015년까지 도정미 100만 톤을 수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65만 톤을 넘은 적이 없다.¹⁵⁾

〈그림 2-5〉 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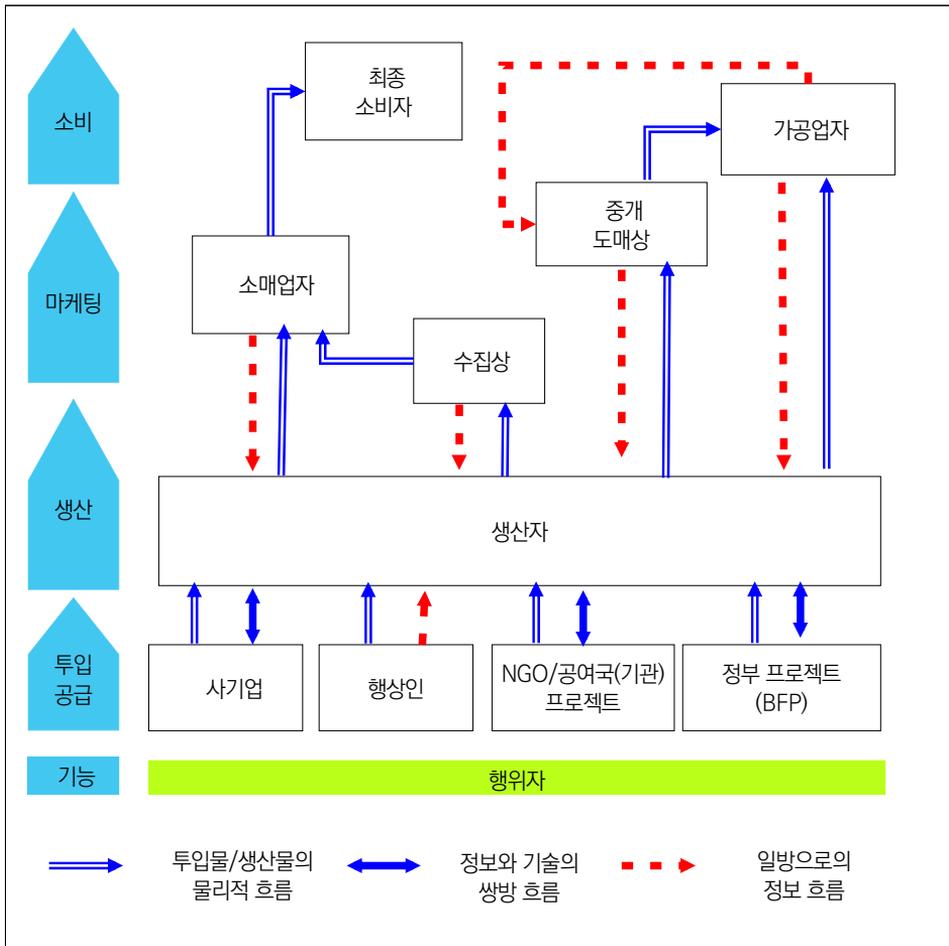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p.156).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과일, 채소는 크게 보아 농가→수집상→중간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전달되는 가치사슬 구조로 되어 있다. 농가가 지역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예도 있는데(15%), 대체로는 수집상을 통한 유통(85%)이 많다(김동환, 2016, p.130). 수집상은 농가나 밭에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자신이 보유한 오토바이나 소형 밴 등 초보적 운송시설에 적재, 프놈펜과 같은 대도시(태국 등 인근 국가와의 국경 지역 포함)로 이동한 뒤 판매한다. 프놈펜에서는 덤코(Derm Kor) 시장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청과물 시장에서 팔린다(조선미, 허장, 2020; Vichet, 2018).

〈그림 2-6〉 캄보디아 채소(양배추) 생산-유통-판매 경로



자료: Sophea(2018).

캄보디아 국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어서 특히 문돌키리와 같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은 프놈펜 등 주요 소비지에서 수입 농산물보다 고가에 판매된다(조선미, 허장, 2020).

과일, 채소도 벼와 마찬가지로 가공 수준이 매우 낮아 주로 청과물 상태에서 별다른 품질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된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당사자 간의 대면, 상대 매매로 이루어진다(김동환, 2016, pp.130-131). 거의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반도 대나무 바구니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손상되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장의 인프라 자체도 낡고 혼잡하며 비위생적이어서 재건축 혹은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ADB, 2021b, p.22). 한 연구에 따르면, 열악한 수확 후 관리 기술 때문에 채소의 25~40%가 유통과정에서 손상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확 후 손실을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생산면적을 늘리는 것보다 환경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는 농산물 가격 등 유통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캐나다, 식량농업기구(FAO)의 지원으로 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https://amis.maff.gov.kh/>). 시장가격은 조사원들이 주요 품목의 가격을 조사,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방송매체나 간행물, SMS,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된다(김동환, 2016, p.131).

2.3.3. 농산물 수출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 사탕수수와 사탕무, 팜유, 후추, 망고, 바나나, 카사바, 옥수수 등이다.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13년 366만 톤에서 2018년 423만 톤, 2021년 약 798만 톤의 농산물을 수출하여 그 전 해보다 약 64% 증가하였다. 가격으로는 거의 50억 달러에 이르러 역시 전 해에 비해 11%가량 늘어났다(MAFF, 2020).¹⁶⁾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EU이다. 2003년 ASEAN 지역 FTA가 체결되면서 이 지역 내에서의 농산물 교역도 꾸준히 늘어났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농산물 가운데에는 쌀 수출이 절대적으로 많다. 쌀의 경우 동남아시아, EU로 수출 대상국이 다각화하였으나, 그 밖의 농산물은 중국 등 2~3개 나라에 90% 이상 수출하는 등 크게 편중된 상황이다(Ajmani et al., 2019). 이에 따라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2019~2023)에서는 ‘생산성 증대와 작물 다각화’를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사업의 역점을 두고 수행하여야 할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있다(Grimsditch, 2017).

쌀은 캄보디아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수출 전략 작물이다. 도정 이전의 벼 수출은 주로 베트남, 태국으로 국경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정 이후의 정미 상태로는 2009년 1만 2,600톤이던 것이 2018년 62만 6,000톤, 2021년 61만 7,000톤으로 크게 늘었다. 2021년 수출량의 절반인 31만 톤은 중국, 나머지는 EU(15만 5,000톤)와 ASEAN 국가(6만 3,000톤)로 수출된다(MAFF, 2020).¹⁷⁾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 식량부족을 우려하여 벼, 백미의 수출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국내 재고 증가, 농가로부터의 매입 단가 하락 등에 따라 바로 재개하였다. 향미가 전체 쌀 수출의 70% 이상으로, 수출단가 역시 백미의 1.6~2배인 톤당 800~1,100달러에 이른다(정도원, 2020, p.151).

2021년 9월에 발간된 ADB의 아시아지역 농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농업 부문의 공급망(supply chain)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농자재, 농산물의 운송에 제한을 둔 기간이 매우 짧았기에 농산물 가격의 등락은 크지 않았다(ADB, 2021b, p.3). 2021년 상반기에 농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30.3%나 늘었는데 특히 쌀 이외의 농산물 수출이 크게 늘었다(ADB, 2021a, p.195).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중국과는 농산물에서 주로 쌀, 과일 등의 수출을 통한 교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발효하는 중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¹⁸⁾

2.3.4. 농자재

ha당 비료 사용량은 2015년 29.9kg에서 2018년 34.3kg으로 늘었다.¹⁹⁾ 농약은 건기에 벼와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 그 사용량이 증가하였다. 매년 100여 가지 종류의 농약이 320만 리터 이상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살충제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되며, 그 밖에 중국과 EU 지역에서 수입된다. 비공식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서 수입 농약의 최대 90%는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실정이다. 허가 신청된 양을 기준으로 할 때 2019년 공식적으로 수입된 농약은 8만 1,098톤이다(ADB, 2021b, p.16).

농기계 활용의 정도는 주로 자산, 농장 규모, 장비 수준 및 서비스 가용성 등에 크게 좌우된다. 200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농기계 사용은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ha의 우기 쌀 생산에 73노동일(working days)이 동원되었으나 2013년에는 48노동일로 줄었다. 아울러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농업 생산액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생산성 개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ADB, 2021b, p.17).

트랙터는 반테이 미엔체이, 바탐방, 파일린 주 등에 있는 중·대규모 농장에서 사용되는데, 보통 토지 개간과 옥수수, 카사바와 같은 고지대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관리에 쓰인다. 최근에는 건기에 벼를 재배하는 남부지역에서도 트랙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톤레사프 호수 지대(캄퐁츠낭, 캄퐁툼, 푸르사트, 시엠레아프 주) 주변에서는 낮은 리프트의 양수펌프가 논에 물을 대는 데 사용되며, 펌프의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 동력 경운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프놈펜과 가까운 지역(칸달, 프레이벵, 타케오 주)의 농민들은 원심 펌프를 사용한다. 자동 트랙터 사용이 늘고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19)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country/cambodia>). 검색일: 2022. 8. 5.

있긴 하지만 쌀과 채소를 생산할 때 여전히 수동 트랙터가 많이 사용된다(ADB, 2021b, p.16).

2.3.5. 산림, 임업

캄보디아의 산림면적은 1973년 1,310만 ha에서 2018년 840만 ha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체 면적 대비 산림의 면적은 2006년 60%였는데 2018년에는 47%가 되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SDG 목표로, 이를 50%까지 회복시키고자 한다(ADB, 2021b, p.29, p.31).

캄보디아 산림 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산지에서 5km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거의 400만 명이며, 이들은 평균 가계소비의 10~20%를 산림자원에서 얻는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6년 5,400만 달러어치의 목재가 수출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목재는 주로 경제적 토지 양여(Economic Land Concessions)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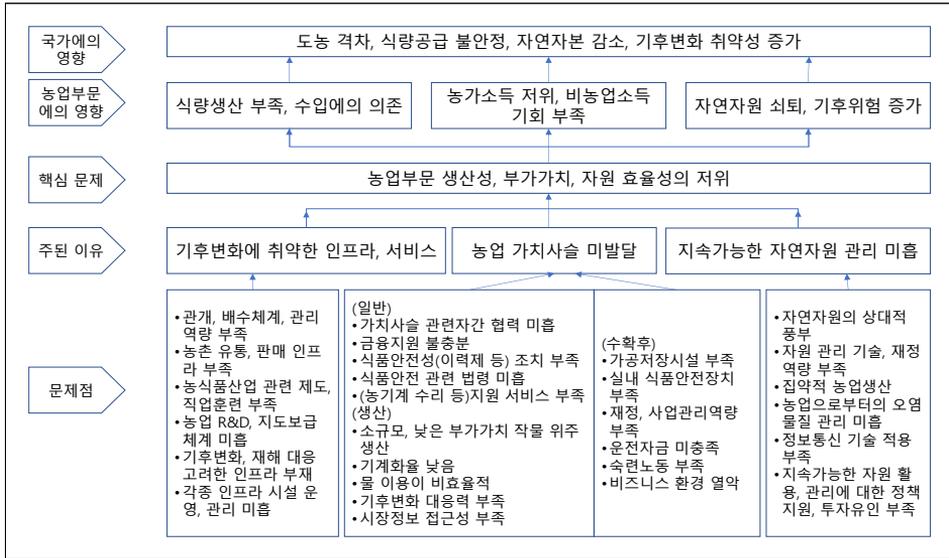
비목재 산림자원(non-timber forest products)으로부터의 생산 가치 규모는 알려지지 않으나, 캄보디아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소득과 사회,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ADB, 2021b, p.13).

2.4. 캄보디아 농업의 문제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캄보디아의 농업은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으며, 아울러 잠재력도 많아 발전의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캄보디아 농업 및 농촌개발과 관련한 문제나무(problem tree)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ADB, 2021b, p.56).

〈그림 2-7〉 캄보디아 채소(양배추) 가치사슬



자료: ADB(2021b, p.56).

다음 표는 축산업, 임업, 어업을 제외한 캄보디아 작물 분야 농업의 SWOT를 설명한 것이다.

〈표 2-15〉 캄보디아 작물 분야 농업에 대한 SWOT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토지와 수자원 • 많은 작물이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가짐. • 벼, 캐슈너트, 카사바, 옥수수, 참깨, 과일, 후추 등 많은 작물이 생산에서 잉여 발생 • 벼 종자 개발에 노력하는 연구 조직이 존재 • 벼 종자 개발에 주로 노력하는 종자회사가 존재 • 쌀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 존재 • 도로, 전기, 관개, 수자원 등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 • 도로, 전기, 시장, 금융에의 접근성이 개선 • 비교적 개방적인 교역 여건 • 지리적 표시제(캄포트 후추, 캄폰스페우 팜슈가) • 최근 쌀포럼에서 캄보디아 향미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쌀”로 명성을 얻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 대부분 공급사슬의 조직화가 취약 • 작물 농사에 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생산, 농가 수지, 수출, 토지 규모의 분포)가 제약 • 벼 이외의 농작물에 대한 연구 조직은 부족 • 공공, 민간, NGO들의 기술보급 활동 간의 조정이 부족 • 농업에의 공공부문 투자가 부족 • 작물 분야에의 민간부문 투자가 부족 • 작물 분야에 농민조직이 취약 • 계약영농이 성공하기 어렵고 소농이 현대식 가치사슬에 통합되기도 어려움 • 종자와 화학 농자재에 관한 법령이 취약 • 환경친화적, 기후 스마트 농업에 대해 GAP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함. • SPS 규정과 식품안전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 취약, 정책과 규정 부족, 기존 규정의 실행 미흡

(계속)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의 생산성 잠재력과 현실 간의 격차를 메울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중요한 향미 수출국 • 유기농 캐슈너트의 세계적 수출국 • 안전한 채소를 자급할 수 있는 역량 • 망고, 두리안 등 고품질의 신선, 가공 과일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음. • 아시아경제공동체(AEC)에 사료를 공급할 수 있음. • 아시아에 카사바 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본고장 (캄포트 후추, 캄프스페우 팜슈가, 캄포트 두리안) • 글로벌 가치사슬에 잘 통합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업적 소농에 기초하여 농업의 근대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에의 대비와 기후 복원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빈번한 자연재해에 맞닥뜨림. • 자연자원을 통제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게 계속 사용함으로써 토양 악화, 물 유역의 손실, 어족 자원의 손실 초래 • SPS와 식품 안전, 화학 농자재, 종자, 유기농 인증, 계약 영농, 경제적 토지 양여(ELCs) 등에 관한 규정이 취약하거나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

자료: Goletti & Sovith(2016, p.22).

캄보디아 농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특히 작물생산 농업(crop agriculture)은 종자 등 투입재의 품질이 열악하며,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가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신선 농산물 상태로 판매, 수출되어 농업 부문 종사자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가 낮고,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가 있어도 경쟁력(competitive advantage)은 뒤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캄보디아 농산물의 10% 정도만 국내에서 가공되고, 가공 농산물이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ADB, 2019, p.4; 2021b, p.4). 농작물이 비교우위가 있더라도 수확 후 공급망에서 10~30%의 손실이 발생하여 수익을 낮추고, 유통 비용과 가공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 경쟁력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Goletti & Sovith, 2016, p.46).

벼가 매우 중요한 작물이기는 하지만,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밭작물 생산 확대 등 작물생산에서의 다각화(diversification)와 가치사슬 개선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Goletti & Sovith, 2016, pp.23-24).

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중·대농의 비율도 점차 늘어남에 따라 농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규모화된 영농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Goletti & Sovith, 2016, pp.25-26).

캄보디아의 농업은 생산성(productivity)의 제고, 비즈니스로서의 농업을 통한 수익성(profitability)의 향상,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competitiveness)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Goletti & Sovith, 2016, pp.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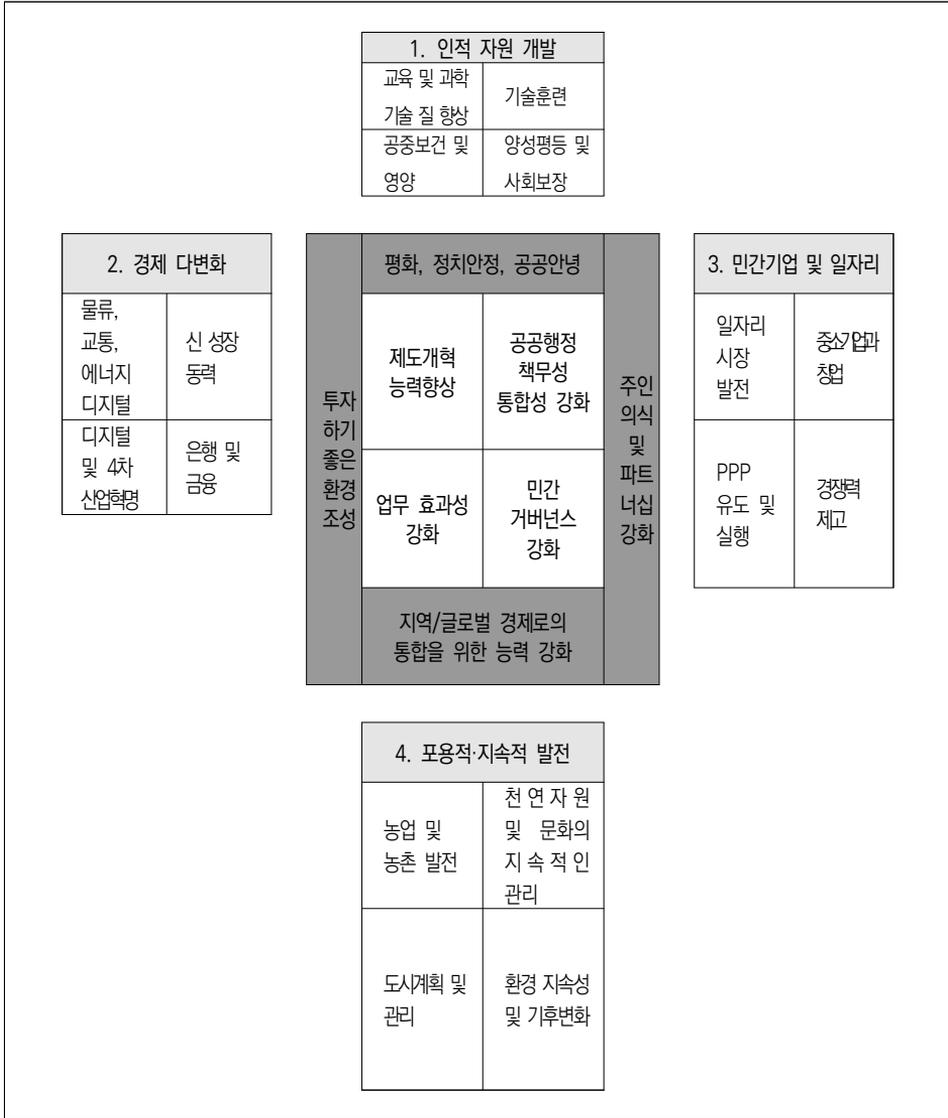
2.5. 국가, 농업 부문 전략

2.5.1. 4단계 사각전략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RS)’은 캄보디아에서 2004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는 최상위 국가개발전략이다. 현재는 4기(2018~2023) 전략이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의 목표는 연 7%의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율 10% 미만 달성, 중앙·지방 정부 역량 및 거버넌스 강화로 설정되어 있다. 4대 전략으로 ① 인적 자원 개발, ② 경제 다각화, ③ 민간기업 및 일자리, ④ 포용적·지속적 발전이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네 번째 전략의 세부 전략으로 △ 농업 및 농촌발전과 △ 천연자원 및 문화의 지속 관리 등이 있는데, 후자는 산림자원의 보호를 포함한다. 3기(2014~2018) 전략에서는 4대 전략의 첫 번째로 ‘농업 부문 발전’이 선정되고 세부 전략으로 △ 농업 생산성 증진 및 다각화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농업 및 농촌 개발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4기 전략에서는 약화,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관계부처 합동, 2020).

〈그림 2-8〉 캄보디아 4기(2019~2023) 사각전략 개요



자료: Royal Government of Cambodia(2019b, p.3).

농업 및 농촌발전 세부 전략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2030을 향한 농업 분야 발전 마스터플랜’ 및 ‘농업전략개발계획(2019~2023)’의 실행
- ② 식물보호 및 위생에 관한 법 및 계약영농법의 실행

- ③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고품질, 품목 다양화 추진: 고부가가치 작물, 가축, 어업의 연구개발, 시범모델 농장의 개발, 농업기술서비스 장려, 농민조합(AC) 육성, 계약영농 장려, 농업 투입의 질 제고 및 비용 감소, 농업보험 서비스 실행,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금융 지원, 디지털 및 스마트 기술 활용
- ④ 농작물 생산 분야 민간투자 촉진: 쌀, 카사바, 망고, 캐슈너트, 바나나, 고무, 채소 등
- ⑤ 채소재배 및 채소 도매시장 건설(높은 위생 기준 적용)
- ⑥ 농업의 상업화: 위생의 강화, 거래시설 확충, 투자 확대, 수출을 위한 품질 실험실 투자
- ⑦ 축산 및 양식업의 육성: 동물 보건 및 생산에 관한 법, 축산 발전을 위한 전략(2016~2025) 및 양식업 발전 전략(2016~2030)의 이행
- ⑧ 토지 사용 양허(concession)의 강화, 지뢰와 불발탄 제거
- ⑨ 농업 관개 시스템 투자
- ⑩ 농촌 도로, 소규모 관개시설, 전기, 식수, 위생의 확대, 마을 및 주택 개량, 일촌일품(One village one product)운동, 새마을운동(New Village Movement) 추진

2.5.2. 국가전략개발계획, 농업전략개발계획, 농업 부문 마스터플랜

사각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은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9~2023: NSDP)’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농업 부문 중기정책은 ‘농업전략개발계획(Agricultur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9~2023: ASDP)’이다. 부문 계획의 내용 가운데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역점을 두고 수행하여야 할 5가지 프로그램은 ① 생산성 증대와 작물 다각화, ② 가축 생산 및 가축 위생 제고, ③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업 개발, ④ 산림자원 및 야생 관리와 개발, ⑤ 서비스 및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아울러 중점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표 2-16>.

〈표 2-16〉 NSDP 및 ASDP에서의 농업개발을 위한 역점 프로그램과 중점 추진 사업

프로그램		중점 추진 사업
생산성 증대와 작물 다각화	생산량 연 5% 증대, 수출량 연 7% 확대 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식 농업기술 연구 • 협동조합 역량 강화 • 고부 농가 지원 • 고부가가치 농산물로의 다각화 • 상업적 축산농가 지원 • 검역통제소 수립 • 기존 어업 공동체 역량 강화 • 국가산림프로그램 업데이트 • 어업, 산림 관리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 제재 • 국제협력 강화
가축 생산 및 가축 위생 제고	생산량 연 3% 증대 등 목표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업 개발	양식업 생산 연 20% 증가 등 목표	
산림자원 및 야생 관리와 개발	산림면적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서비스 및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캄보디아 농업과학학술원 설립 추진 등 목표	

자료: RGC(2019b, pp.198-201).

NSDP에서 설정한 2023년 농업 부문 성장률 전망(목표)치는 1.8%로써, 제조업 부문 10.0%, 서비스 부문 6.2%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RGC, 2019b, p.112).

한편, 이러한 개발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물부가 작성한 ‘농업 부문 마스터플랜(Agricultural Sector Master Plan 2030)’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농업 부문 부가가치가 2021년부터 10년 동안 연간 3%씩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농업노동 생산성도 이 기간에 연간 7.9%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MAFF, 2020). 다음 표는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들을 전략목표별로 제시한 것이다.

〈표 2-17〉 농업 부문 마스터플랜에서의 전략목표별 2030년 달성 목표치

전략목표	지표별 목표/지표	현재(2019년) → 미래(2030년)
1.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개선	작물 총부가가치 연간 3.1% 증가	13.13조 리엘 → 18.37조 리엘
	축산업 총부가가치 연간 3.1% 증가	2.5조 리엘 → 3.36조 리엘
	총 수출농산물 중 가공수출 농산물 비율	7% → 15%
2. 농업지원 및 농기업 활성화 확대	우기 및 건기 관개율	55.27% → 59.26%
	kWh당 480리엘 보조금을 지원받는 협동조합 비율	1% → 20%
	농사 연결 도로 길이	1,500km → 3,250km

(계속)

전략목표	지표별 목표/지표	현재(2019년) → 미래(2030년)
3. 농지, 산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확대	임업 총부가가치 연간 1.2% 증가	1.49조 리엘 → 1.7조 리엘
	수산업 총부가가치 연간 4.3% 증가	5.49조 리엘 → 8.73조 리엘
4. 제도, 법령, R&D, 인적 자원 개발 강화	-	-

자료: MAFF(2020)에서 저자 정리.

이밖에 NSDP는 수자원기상부(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eteorology: MOWRAM)가 담당하여야 할 과제로 ① 행정관리 개선과 인적 자원 개발, ② 관개시설 관리 등 수자원 관리와 개발, ③ 수자원 및 기상 정보 관리, ④ 홍수 및 가뭄 관리, ⑤ 용수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보전 등을 제시하였다. 농촌발전부(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MRD)는 ① 농촌 도로 인프라 개발, ② 깨끗한 물 공급, ③ 농촌 위생, ④ 인적 자원 개발, ⑤ 지역사회 개발, ⑥ 소수민족 개발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농업농촌발전위원회(Counci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ARD) 소관 사항으로 ‘1촌 1품 운동(One Village One Product Movement)’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포함하였다(RGC, 2019b, pp.203-210).

2.5.3. 캄보디아 작물생산 마스터플랜

캄보디아 작물생산 마스터플랜(Master Plan for Crop Production in Cambodia by 2030: CMP)은 MAFF의 의뢰로 외부 컨설턴트가 작성한 작물생산 분야 종합 계획서이다. 쌀 등 주요 작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분석한 뒤 2030년까지의 발전 방향과 소요 예산 등을 제시하였다(Goletti & Sovith, 2016). 28개 작물 가운데 국가 경제에서의 중요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쌀, 옥수수, 카사바, 녹두(mung bean), 망고, 캐슈너트, 후추, 채소 등 8개 전략 작목을 선정하였다.

2.5.4. 산업개발정책 및 농업 분야 집행계획

캄보디아 산업개발정책(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DP 2015~2025)

은 농림업을 포함한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서로써, 2025년까지 2차 산업 비율을 GDP의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2013년에는 24.1%). 즉,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위주의 산업(skill-driven industry)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인데, 의류, 건설, 식음료 가공의 육성이 핵심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51만 개의 제조업체 중에는 식음료 관련 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고 있다. IDP는 2025년까지 가공 농산물이 전체 수출의 12%에 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 첫 단계로 제조업, 농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잠재력을 살려 다각화한다. 그다음에 생산의 다각화를 통한 전반적인 산업 재구조화, 나아가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초하여 전문화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단계별 목표이다(RGC, 2015).

IDP의 실천을 위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가 수립한 실행계획에서는 10년간 총 1억 1,570만 달러를 투입하여, 민간의 투자 촉진, 중소형 농기업의 확대와 현대화, 규제 개혁, 관련 정책 조정 등의 조치를 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특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공, 포장, 국내외 판매·수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농산업 복합지구(agro-industrial zones)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MAFF, 2015).

2.5.5. 국가산림프로그램

2010년부터 201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설정한 ‘국가산림프로그램(National Forest Program: NFP)’은 갈수록 줄어드는 산림의 면적과 산림자원의 장기적 관리를 위해 농림수산부 산하의 산림청(Forestry Administration) 주관으로 다음과 같은 9개의 이행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② 토착민의 법적 등록 및 비목재임산물(Non-Timber Forest Products: NTFP)에 대한 접근성 강화, ③ 산지 지역주민의 기후변화 및 대응능력 강화, ④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⑤ 산림 거버넌스의 강화, ⑥ 산림보전에 관한 관계자 이해도 제고, ⑦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⑧ 효율적인 산림관리모델 개발, ⑨ 지속할 수 있는 자원

조달 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이다(조선미, 2019, pp.9-10).

2.5.6. 개발협력 파트너십 전략

한편, 캄보디아는 2014년부터 중앙부처의 하나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소속의 캄보디아 재건 및 개발이사회(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of th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RDB/CDC) 주관으로, 사각전략 등 국가전략의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개발협력 파트너십 전략(Development Cooperation & Partnerships Strategy: DCPS)’ 문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9~2023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DCPS는 사각전략과 NSDP, 그리고 캄보디아 지속가능개발목표(Cambodia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SDG)와 부문별 주요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이 되고자 목표 및 추진 방법 등을 설정하였다(RGC, 2019a).

이에 따르면 향후 공여국, 국제 공여 기관과의 개발협력을 통해서 사각전략 등의 국가 및 부문 전략이 설정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효과성(effectiveness)과 파급성과(impact)를 높이는 데 모든 자원을 동원, 관리하도록 한다. 전략목표로는 ① 국내 전략에 부합하도록 하는 주체성(Ownership), ②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파트너십(Partnership), ③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Results)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RGC, 2019a, p.5).

제3장

농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농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1.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황

1.1. 개발협력 현황

1.1.1. 개발협력 실적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캄보디아에 지원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실적은 상당한 편이다. 2020년 캄보디아에 대한 ODA 총액은 1억 2,355만 달러이며 최근 10년 사이 ODA가 가장 많았던 2014년에는 2억 4,432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그러나 농림업 분야와 관련한 ODA는 미미한 상황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캄보디아에 대하여 농업과 임업, 농촌개발 분야에서 지원한 ODA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해마다 부침은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5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총지원액의 약 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동안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가 對캄보디아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컸던 해(2015년)에도 약 7.1%에 불과했는데, 2015년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가장 적게 ODA를 지원한 해이기도 하다.²⁰⁾

〈표 3-1〉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0~2020년)

단위: 백만 달러

분야(목적코드/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	0.094	1.01	0.25	0.09	0.34	0.06	0.03	0.40	0.003	0.29
	31120: 농업 개발	0.31	2.17	2.17	1.58	9.56	2.44	3.93	1.39	2.66	2.88	1.45
	31140: 농업용 수자원	-	-	-	0.018	-	-	-	0.025	-	-	-
	31161: 식량생산	0.09	0.07	-	0.11	0.04	0.04	-	0.05	0.03	0.04	0.37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	-	-	-	-	-	-	0.05	-	-	-
	31163: 축산	0.06	0.06	0.02	-	0.03	0.08	0.16	0.14	0.04	-	0.05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2.50	-	-	0.03	-	-	0.04	0.02	0.07	0.04	-
	31181: 농업 관련 교육/훈련	0.09	0.07	0.42	0.30	0.66	0.16	2.08	0.06	0.04	0.06	0.01
	31182: 농업 연구	0.01	0.10	0.18	-	-	-	0.24	0.05	0.07	-	-
	31191: 농업 관련 서비스	-	0.01	-	-	-	-	0.43	0.11	0.15	0.60	-
	31192: 병충해 구제	-	-	-	0.05	0.11	0.81	0.18	0.14	-	-	-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0.05	0.06	-	-	-	-	-	-	-	0.02	-
	31194: 농업협동조합	0.25	-	-	-	-	0.07	0.11	0.09	0.11	0.12	0.07
	31195: 축산진료	0.02	0.04	0.01	0.31	0.32	-	-	-	-	-	-
	311: 농업 전체	3.38	2.67	3.82	2.64	10.80	3.94	7.22	2.15	3.56	3.74	2.25
임업	31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0.05	0.10	0.12	-	-	-	-	-	-	-	-
	31220: 임업 개발	-	0.41	0.94	0.72	-	-	0.17	0.35	0.36	0.34	0.34
	31281: 임업 교육/훈련	-	0.41	0.94	0.72	-	-	0.17	0.35	0.36	0.34	0.34
	312: 임업 전체	0.05	0.05	1.07	0.72	0.96	0.02	0.18	0.35	0.36	0.34	0.34
다 분야	43040: 농촌개발	0.21	0.36	0.92	0.78	0.36	0.15	0.49	0.38	0.5	0.63	0.57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총액		3.64	3.54	5.81	4.14	12.12	4.11	7.89	2.89	4.42	4.72	3.16
전체 ODA 중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분야 비율		4.5%	3.8%	6.3%	3.7%	5%	7.1%	4%	4.7%	2.5%	4.6%	2.6%
ODA 총액		80.22	94.20	92.07	113.04	244.32	57.62	199.34	61.47	174.70	102.64	123.55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8. 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1.2.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가 수행 중인 농림업(지역개발) 분야 ODA 사업은 모두 10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가장 많은 수(5건)의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KOICA가 각 1건, 행정안전부가 2건이다. 프로젝트형 사업이 7건이며 개발 컨설팅 사업이 3건이다. 사업비 규모는 프로젝트형 사업의 경우 13억 6,000만 원에서 113억 원의 양극단 두 건을 제외하면 5건이 평균 46억

20)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8. 8.

원가량이다. 사업 기간은 대체로 4년 정도이다.

농식품부는 영농 기술 전수, 영농센터 건립, 채소 생산과 가치사슬, 원예 작물 스마트팜 등 농업기술 교육·보급, 원예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비슷한 규모와 기간의 사업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 설치된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운영 및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며, 산림청은 시엠레아프의 장미나무 자생지 주변의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이다. KOICA와 행정안전부는 시범 마을에 대한 종합개발적 성격의 사업을 시행한다.

〈표 3-2〉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지역개발 분야 ODA 사업(2022년 현재)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 명	사업유형	총사업예산 (억 원)	'22년 확정액 (억 원)	사업 기간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캄보디아 영농 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	프로젝트	41.7	3.0	2017~ 2023년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캄보디아 크라티에 영농센터 지원사업	프로젝트	37.9	10.5	2020~ 2024년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캄보디아 산지지역의 고부가가치 채소 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	프로젝트	57.2	17.9	2021~ 2024년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캄보디아 간달주 고품질 채소· 과채류 스마트팜 사업	프로젝트	49.2	8.5	2021~ 2024년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캄보디아 통합 적 농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	개발 컨설팅	3.0	3.0	2022년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캄보디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3차 사업	개발 컨설팅	55.0	14.4	2020~ 2024년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ODA)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사업	프로젝트	42.8	15.2	2021~ 2024년
한국국제 협력단	캄보디아 (ODA)	캄보디아 농촌종합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	프로젝트	113.0	8.5	2022~ 2026년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가 간 협력강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캄보디아)	개발 컨설팅	14.4	4.8	2021~ 2023년
행정안전부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ODA)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 조성 및 관리	프로젝트	13.6	2.2	2022~ 2026년

주: 지원 방식은 모두 양자 무상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1.2. 협력전략

1.2.1. 국가협력전략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은 2020년 1월에 수립되었다. 이 전략서는 캄보디아가 신흥시장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농업에서의 인프라와 경쟁력이 부족, 취약하다고 평가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p.125).

〈표 3-3〉 對캄보디아 ODA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협력국으로 우리 정부의 높은 지원 의지 • 타 공여국 대비 유리한 조건의 구축성 원조 (Concessional Loan) 제공 가능 • 캄보디아 정부의 우선지원 분야(도로, 보건, 교육, 농업, 전력 등)에 대한 비교우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내 5번째 공여국이나, 중국·일본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음. • 부처, 지자체 등 우리 정부의 다양한 ODA 이해관계자 존재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중심의 최빈국에서 빠른 속도로 산업 및 서비스 중심 국가로 진입 • 캄보디아 정부의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빈국 지위 졸업에 따른 내부 환경 변화(경제, 개발 협력 등) 및 거시경제 불안(경제위기 등) * 무역·관세 특혜 폐지로 인한 수출 둔화 등 • 정부 비효율 및 부패 • 정치 환경 변화(훈센 집권체제 변화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p.126).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CPS는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 및 경제 다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① 교통, 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③ 교육, ④ 지역(농촌)개발 등 네 가지를 중점 분야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 p.133).

이 가운데 지역개발 분야의 세부 분야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농촌개발, 농업기술 개발·보급, 농업 가치사슬, 농업 생산 인프라 등 다섯 가지이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4〉 CPS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실행계획

세부 분야	목표	내용
농업 관련 교육/훈련	농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한 농업인력 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 획득에 기여	- 농업 분야 고등교육 및 농업 관련 기술 연구 및 혁신 강화 지원
농촌개발 등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촌 빈곤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관개시설 등 농업 기반시설 구축 * 예) 반테민체이 관개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 사업 등 - 주민주도형 참여적 농촌공동체 개발을 통한 빈곤 해소 및 소득증대 등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개발 모델 정립 기여 - 협동조합, 주민조직을 통한 농촌지역 사회적 자본 확충 등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지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현지 협력기관 공동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생산성 향상 역량 개발 지원	- 생산비 절감, 우량 종축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단계별 추진 * 예) 옥수수, 녹두, 무병씨감자 등 작물과 버섯 및 누에고치 생산성 향상, 채소 재배 기술지원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연계(생산-저장-가공-판매-유통) 및 시장 접근성 개선	- 수확 후 관리, 가공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농산물 품질 제고 및 농촌의 소득증대 - 농산물 유통정책 수립 지원 및 가공·유통시스템 개선 등 농촌 자립 생태계 구축 지원 - 역내 무역 및 농산물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수출목표 농산물 대상 품질관리·검역체계 구축 - 마이크로 크레딧 지원 확대 등 소농의 금융 접근성 개선 및 시장 접근성(판매-유통망, 시장가격 정보) 개선
농업 생산 인프라	지속가능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 인프라 지원 및 역량 강화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개시설 구축 및 재정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수 피해 저감 사업 추진 - 국내외 NGO와 연계를 통한 사업 발굴 확대 및 이행방식 다양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pp.143-144)에서 저자 정리.

CPS가 중점 추진 분야로 지역(농촌)개발 분야에서 제시한 세부 분야와 구체적 내용은 대체로 농업과 농촌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농축산물(가령, 쌀, 낙농 등)이나 기능(가령, 농기계 보급, 도매시장 기능 개선 등), 혹은 지역(가령, 중산간 고원 지대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1.2.2. 한국국제협력단의 국가지원계획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협력전략과는 별도로 다량의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자체적으로 분야별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별 지원계획, 즉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을 수립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개별 사업의 방향과 세부 사업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별 CP는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며, 각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개발 컨설팅, 민관협력 등 개별 사업을 발굴하는데 구체적,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²¹⁾

캄보디아에 대한 CP도 수립되어 있다. 이 CP에서의 프로그램은 세 가지인데, ① ICT,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및 산업 다각화 지원, ②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향상, ③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등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프로그램의 기본방향은 ‘농업기술 및 시장 가치사슬 강화 지원을 통한 농민 소득증대’로, 농업 관련 기술 및 농촌개발 사업과 가치사슬 강화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로는 ‘노동 단위당 생산량’과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이다.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2.1. 개발협력 현황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개발정책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CDP)는 3년에 한 번씩 저개발국가(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에 속하는 나라를 발표하는데, 캄보디아는 경제와 환경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인적

21) 한국국제협력단(https://www.koica.go.kr/koica_kr/8131/subview.do/). 검색일: 2022. 8. 7.

자산이 매우 낮다고 평가되는 이 LDC 그룹에 속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GNI 지표에 기초하여 3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하위 중간소득 국가(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LMICs)에도 속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캄보디아에 가장 많이 ODA를 지원한 국가는 일본으로, 그 규모가 약 31억 2,064만 달러에 이른다. 그 뒤를 아시아개발은행(ADB), 그리고 우리나라가 잇는다.²²⁾

〈표 3-5〉 공여국 및 공여 기관 지원 규모 순위(2010~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순위	국가	규모	비율
1	일본	3,120.64	20%
2	아시아개발은행(ADB)	2,607.09	17%
3	한국	1,343.17	9%
4	미국	1,316.10	8%
5	프랑스	1,088.51	7%
6	국제개발협회(IDA)	972.56	6%
7	유럽연합(EU)	745.90	5%
8	호주	688.46	4%
9	독일	625.89	4%
10	국제금융공사(ICA)	516.59	3%
총액		13,024.91	100%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8. 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2)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8. 8.

〈표 3-6〉 농림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0~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분야(목적코드/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업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4.31	2.60	23.55	7.28	20.03	2.14	16.14	19.01	23.98	23.67	20.47	
	31120: 농업 개발	8.13	18.72	48.01	59.26	48.57	15.59	16.29	19.19	9.72	19.47	38.64	
	31130: 농업용지	0.19	23.94	1.33	4.50	2.57	1.37	3.33	2.97	0.37	1.98	0.51	
	31140: 농업용수자원	31.80	56.39	13.50	42.33	119.73	35.32	2.24	2.40	37.38	165.43	0.47	
	31150: 농업투입요소	0.02	1.17	0.01	0.50	10.50	0.13	0.10		0.05	0.04	1.26	
	31161: 식량생산	2.29	6.21	1.67	28.61	5.18	0.09	5.28	0.05	63.95	16.95	9.52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0.05		1.04	0.20	
	31163: 축산	0.48	0.35	0.16	0.22	0.09	0.24	0.16	0.14	0.04	0.25	0.05	
	31165: 농업 대체 작물						0.18			0.64	0.00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2.71		2.33	0.17	20.10		7.81	0.78	10.51	0.04	0.00	
	31181: 농업 관련 교육/훈련	0.29	0.23	1.33	0.40	0.66	0.16	2.08	0.77	0.79	0.18	0.03	
	31182: 농업 연구	1.90	1.61	4.20	2.49	2.85	1.22	1.53	1.13	3.03	18.00	4.35	
	31191: 농업 관련 서비스	0.36	1.82	0.26	0.12	0.55	0.20	12.17	1.49	34.47	39.44	25.41	
	31192: 병충해 구제				0.05	0.11	0.81	0.18	0.14		0.03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0.05	0.20	15.19	0.10	1.41	1.25	20.72		0.12	24.77		
	31194: 농업협동조합	0.76	1.49	0.05	0.15	0.34	0.74	3.29	9.59	0.54	0.47	0.52	
	31195: 축산진료	0.31	0.59	0.88	0.80	0.61	0.06	0.04	0.04	0.01	0.30	0.00	
	임업	31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1.18	2.39	1.44	2.08	1.56	0.12	0.08	0.26	0.63	0.04	0.10
		31220: 임업 개발		0.41	0.97	1.11	0.34	1.08	0.61	0.84	1.18	1.64	1.21
31281: 임업 교육/훈련							0.02	0.01		0.00			
다 분야	43040: 농촌개발	10.06	22.22	5.78	6.13	29.90	40.36	0.57	23.04	68.77	13.65	171.60	
농림 분야 총액		64.85	140.33	120.65	156.30	266.06	101.37	92.62	82.13	256.35	327.40	274.34	
전체 ODA 중 농림 분야 비율		6%	16%	14%	12%	18%	9%	6%	6%	12%	21%	11%	
ODA 총액		1,039.74	851.99	873.54	1,322.14	1,469.54	1,170.13	1,564.41	1,337.48	2,031.98	1,529.76	2,407.27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8. 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위 OECD.Stat의 통계는 중국의 원조 현황 관련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큰 개발협력 자금 지원국이다(RGC, 2020, p.9). 2015년에 캄보디아에 지원된 개발협력 자금의 15%가 농업 부문에 할당되었는데 그 가운데 53%는 중국이 지원한 것이었다(Grimsditch, 2017, p.42).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국적 파트너들도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원조금액을 각각 7,000만 달러와 2억 4,600만 달러 늘렸다. 2019년에 캄보디아의 6대 개발 파트너인 중국, ADB, 일본, 프랑스, 한국, 그리고 세계은행이 전체 지원 금액의 68%를 차지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캄보디아에 차관 지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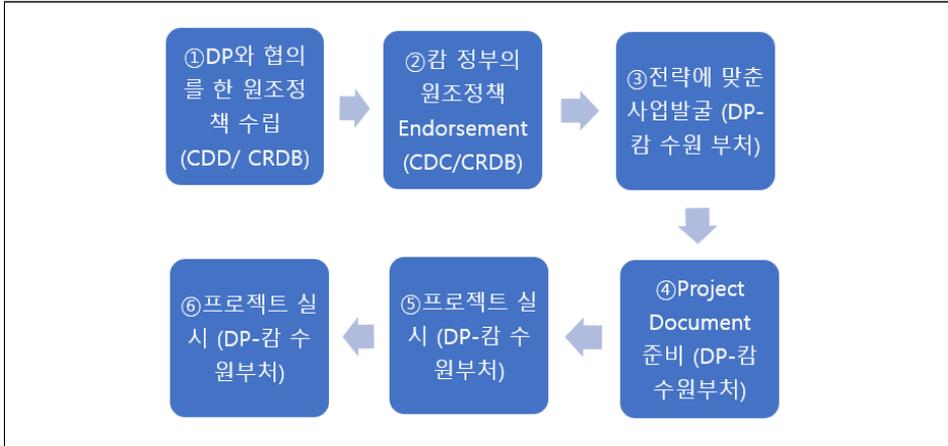
늘리면서 동시에 무상자금협력 규모를 늘리고 있다(RGC, 2020, p.11).

캄보디아에 지원된 ODA 자금은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4기 사각전략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강조함에 따라 ODA 지출 또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2011년 이후 인프라 부문은 경제 부문에서의 지출이 2011년 각각 2억 8,270만 달러와 3억 6,480만 달러에서 4억 7,270만 달러와 6억 7,62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지만, 범분야 이슈 부문의 지출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RGC, 2020, p.11).

캄보디아에서 무상원조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 CDC)의 재건개발이사회(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RDB), 유상원조는 경제재무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가 담당하는데, 관련 전략수립과 통계 관리 등은 CDC의 CRDB가 담당한다. 원조 조정 등 의사결정은 총리가 수행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pp.130-132).

무상원조의 경우 원조 기관이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한 뒤 CDC-CRDB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 DP) 기관은 CDC와 협의를 거쳐 원조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하게 되면 이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와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사업이 발굴되면 사업 개요가 담긴 문서, 즉 사업기획서(Project Document: PD)가 양측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관계부처 합동, 2020, p.132).

〈그림 3-1〉 무상원조 사업 수행 일반 절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p.132).

2.2. 주요 개발 파트너의 개발협력 전략

2.2.1. 아시아개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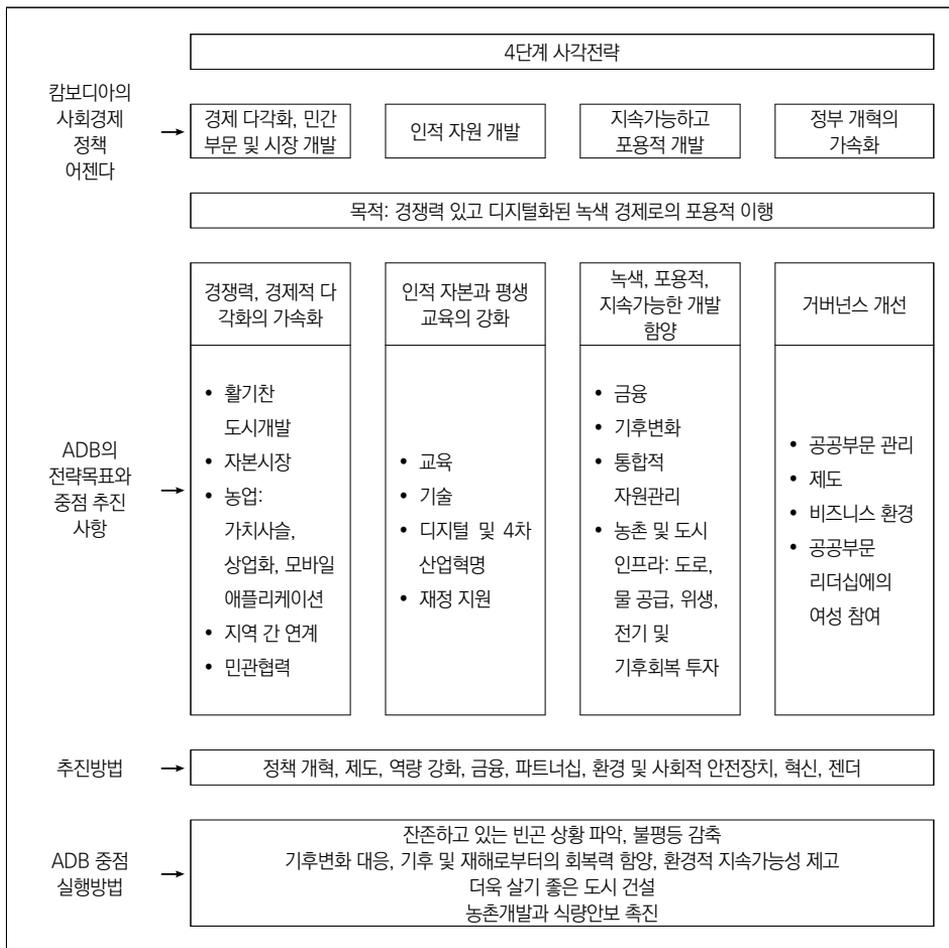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19년 수립한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2019~2023년의 5개년을 대상으로 한다(ADB, 2019). ADB는 캄보디아의 농업이 저생산성과 자원 활용에서의 낮은 효율성이 문제이며, 그 이유로 ①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 생산과 서비스 인프라, ② 저개발 상태의 가치사슬, ③ 지속가능하지 못한 자연 자원과 수자원의 관리 등을 들었다(ADB, 2019, p.6).

ADB의 CPS는 “경쟁력 있고 디지털화된 녹색 경제로의 포용적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2023년까지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 9.5%(2015년 13.5%), 계획기간 내 연평균 GDP 성장률 7%, 15세 이상 성인 문해율 89.8%(2018년 82.5%) 달성을 구체적인 목표치로 제시하였다(ADB, 2019, p.16).

이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의 4단계 사각전략의 핵심 목표와 연계하여 네 개의 전략 목표(pillar)를 설정하였는데, 그것은 ① 경쟁력과 경제 다각화의 촉진, ② 인적 자본과 평생교육의 강화, ③ 녹색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개발의 추진, ④ 거버넌스의 개

선 등이다. 이 가운데 농업과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ADB가 향후 중점 추진할 사항은 첫 번째 전략목표 내에서 가치사슬, 상업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세 번째 목표에서 농촌 도로, 물, 위생, 전기 등의 인프라 개발이다(ADB, 2019, p.9). 특히 주목할 사항은 관개시설에의 투자를 줄이고 앞으로는 농산물의 가치 증진을 위해 ‘전체 체계적 접근(whole of systems approach)’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① 작물의 다각화, ② 물 절약 기술의 활용, ③ 후추와 같이 캄보디아만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작물의 가치사슬 강화 등으로 투자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ADB, 2019, p.10).

〈그림 3-2〉 ADB의 국가협력전략(CPS) 프레임워크



자료: ADB(2019, p.9)에서 저자 정리.

2.2.2.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캄보디아에 대한 협력전략은 2014~2020년 기간에 이어 수립된 EU-캄보디아 다년 예시프로그램(EU-Cambodia 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me 2021~202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기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제 회복을 달성하는 방편으로 캄보디아의 ASEAN과의 연계성과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중점 추진 분야로 ① 녹색성장과 적절한 일자리 창출, ② 교육과 역량 개발, ③ 올바른 거버넌스 등 세 가지를 선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농업과 연관성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1, p.6). 즉 지속가능한 식품 체계를 구축하고, 농기업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산업의 가치사슬 구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향은 다른 ASEAN 국가들과의 개발 격차를 줄이고 권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의 대응,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공급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2.3. 미국 해외원조처

미국 해외원조처(USAID)는 1992년 캄보디아에 USAID 사무소를 재설립한 이래 총 15억 달러어치의 개발협력 원조를 제공하였다.

2020~2025년을 기간으로 하여 수립된 캄보디아 개발협력 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에 따르면, 협력의 목적(goal)은 “캄보디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더 개방적이고 번영하며 회복력을 갖춘 포용적 파트너가 되도록 함”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개발목표(development objective: DO)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 DO1: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확장, △ DO2: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캄보디아 국민의 건강, 교육, 복지의 개선, △ DO3: 인권 보호 및 정부의 책무성 진전 등이다.

각 DO는 세 개씩의 세부 목표(intermediate result: IR)를 포함하는데, 이 가운데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DO1의 IR 중 첫 번째(IR 1.1)로서, “생활 수준의 개선을 위한 경제 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의 진전”을 지향한다(USAID, 2020, p.6).

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이 공급자와 국내외 구매자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시장 지향적(markets-based) 접근방식을 추구하도록 하며, 농민들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표 3-7〉 USAID의 국가개발협력 전략 성과 프레임워크

목적 : 캄보디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더 개방적이고 번영하며 회복력을 갖춘 포용적 파트너가 되도록 함.		
개발목표 1: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확장	개발목표 2: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캄보디아 국민의 건강, 교육, 복지의 개선	개발목표 3: 인권 보호 및 정부의 책무성 진전
세부 목표 1.1: 생계 개선을 위한 경제 다각화의 가속화	세부 목표 2.1: 중요한 보건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 개선	세부 목표 3.1: 헌법과 여타 법적 권리의 수호 강화
세부 목표 1.2: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환경의 개선	세부 목표 2.2: 건강, 교육, 아동보호 체계의 거버넌스와 책무성 강화	세부 목표 3.2: 개혁을 향한 민간의 참여와 행동 확대
세부 목표 1.3: 지속가능하고 책무성 있는 개발을 위하여 천연자원 관리의 개선	세부 목표 2.3: 교육과 아동보호 서비스의 수준 개선	세부 목표 3.3: 정부 기구들에 대한 공공 감시의 강화

자료: USAID(2020, p.6).

3. 개발협력 과제

캄보디아는 최근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산적하다.

최고 국가전략인 제4기 사각전략은 7%의 경제 성장률, 10% 미만의 빈곤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부문 마스터플랜(Agricultural Sector Master Plan 2030)’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3%씩 농업 부문의 부가가치를 늘리고 농업노동 생산성은 연간 7.9%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도 수립하였다(MAFF, 2020).

이와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을 통한 외부 자금의 유입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국가 및 농업 부문 전략은 캄보디아가 개발협력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캄보디아의 국가 및 경제, 농업 부문 현황은 현실적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캄보디아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가운데 ODA를 포함한 개발협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 혹은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각종 전략과 현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7가지 분야를 개발협력 과제로 선정하였다.

- 농촌 도로, 전기, 식수 등 생활 인프라
- 농업 소득원 개발
- 벼 가공(건조, 도정) 역량 제고
- 발작물 관개 인프라
- 농산물 건조, 저장, 포장, 운송 등 물류 시설 확대
- 청년 농업인 위주 농업인력 교육훈련센터 설립
-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체 구성

이하에서는 개발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이러한 과제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한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4장

중점협력 분야

중점협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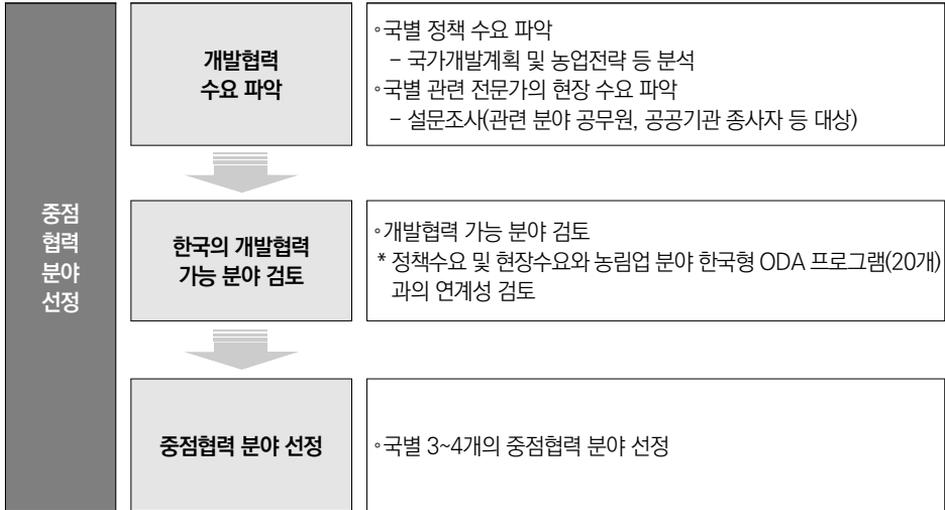
1.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절차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의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분야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는 앞서 파악한 개발협력 과제들에 대하여 캄보디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 즉 ‘한국형 ODA 모델’의 20개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 중점협력 분야 선정

2.1. 가치사슬 중요도 분석 결과

〈그림 4-1〉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절차



자료: 저자 작성.

한국-캄보디아의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의 전문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빈도분석 및 AHP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²³⁾

첫째, 농림업 분야 가치사슬 단계별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가치사슬 단계는 주 활동(primary activity)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y)으로 분류하였다. 주 활동은 투입, 생산, 저장 및 가공, 유통 및 마케팅 단계이며, 각 단계는 4개씩의 세부 활동을 포함한다. 지원활동도 4개의 세부 활동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3) AHP 분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허장 외, 2018)를 참고할 것.

〈그림 4-2〉 AHP 분석을 위한 농업의 가치사슬 모식도



자료: 저자 작성.

캄보디아의 관련 기관 담당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인원은 모두 12명이다. 이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박사 7명과 석사 5명이며, 정부와 공공기관 종사자 8명, NGO 근무 1명, 학계 2명, 민간업체 종사 1명 등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장기 경력자가 5명이고, 5년 미만의 단기 경력자는 4명, 나머지 3명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주에 속한다.

〈표 4-1〉 가치사슬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구분	중요도	세부 활동	중요도 (가중치)	종합적 중요도 (복합가중치)	종합적 중요도 우선순위
주-채널	투입	종자	0.23	0.03	12
		비료	0.18	0.03	12
		농약	0.20	0.04	10
		농기계	0.40	0.07	7
	생산	토지 접근성	0.09	0.01	16
		생산 기반	0.27	0.03	12
		영농 기술	0.45	0.06	8
		노동력	0.18	0.02	15
	저장 및 가공	저장시설	0.12	0.04	10
		농식품 안전성	0.18	0.06	8
		품질관리	0.28	0.08	4
		가공 및 상품화	0.41	0.13	1

(계속)

구분	중요도	세부 활동	중요도 (가중치)	종합적 중요도 (복합가중치)	종합적 중요도 우선순위
유통 및 마케팅	0.40	운송 인프라	0.18	0.08	4
		시장 접근성	0.26	0.11	3
		시장정보	0.22	0.08	4
		수출구조 및 무역환경	0.34	0.13	1
지원활동		금융	0.21	-	-
		R&D	0.28	-	-
		농민역량	0.27	-	-
		지도사업	0.24	-	-

자료: 저자 작성.

가치사슬의 단계별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즉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치사슬의 시작점(생산)보다 그 다음 단계에 속하는 가공부터 판매까지의 부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주활동 범주 가운데에서는 유통 및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0.40), 그다음 저장 및 가공의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0.31) 나타났다. 또한 생산 부문의 중요도를 가장 낮게 여기고 있는 것(0.12)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산성 제고 및 생산력 확대보다 생산 이후 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세부 활동으로 들어가 보면 생산에서 영농 기술(0.45), 투입에서 농기계(0.40)가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장 및 가공에서는 가공 및 상품화(0.41), 유통 및 마케팅에서는 수출구조 및 무역환경(0.34)이 중요한 세부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활동 내 세부 활동 간의 중요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R&D(0.28)와 농민 역량(0.27)의 중요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 활동의 단계별 중요도와 세부 활동별 중요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 중요도는 수출구조 및 무역환경 개선, 가공 및 상품화, 시장 접근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개발수요 분야의 중요도 및 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앞서 선정한 총 7개의 개발협력 과제 각각에 대하여 캄보디아의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7개의 개발협력 과제 중, ‘농산물 건조, 저장, 포장, 운송 등 물류 시설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위주 농업인력 교육훈련센터 설립’이 비슷한 중요도를 나타내며 1위와 2위를 기록하였다. ‘밭작물 관개 인프라’가 그 뒤를 이었으며, ‘농업의 소득원 개발’은 가장 중요도가 낮았다. 가치사슬 단계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 이후의 가공과 유통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보았고, 중장기적 농업개발을 위한 교육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 개발협력 과제별 중요도

개발협력 과제	중요도 (가중치)	순위
농촌, 도로, 전기, 식수 등 생활 인프라	0.08	6
농업의 소득원 개발	0.06	7
벼 가공(건조, 도정) 역량 제고	0.11	5
밭작물 관개 인프라	0.18	3
농산물 건조, 저장, 포장, 운송 등 물류 시설 확대	0.21	1
청년 농업인 위주 농업인력 교육훈련센터 설립	0.20	2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체 구성	0.15	4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이들 7개의 개발협력 과제들이 ‘한국형 ODA 모델’의 농림업 분야 20개 협력 프로그램(주동주 외, 2012)과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였을 때 다음 표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4-3〉 개발협력 과제와 협력 프로그램의 연계성

단위: 점

한국형 ODA 모델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	농촌, 도로, 전기, 식수 등 생활 인프라	농업의 소득원 개발	벼 가공 (건조, 도정) 역량 제고	발작물 관개 인프라	농산물 건조, 저장, 포장, 운송 등 물류 시설 확대 인프라 개발	청년 농업인 위주 농업 인력 교육 훈련센터 설립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체 구성	계
1.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25	6	7	49	6	6	3	102
2. 농업생산기반 구축	17	20	17	30	24	5	10	123
3. 농촌종합개발	5	3	1	11	0	15	14	49
4.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 지도 지원 시스템	18	4	6	15	15	28	23	109
5.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14	5	14	10	4	17	10	74
6. 농산물 가공	20	21	38	6	33	10	22	150
7. 농업협동조합	9	8	13	2	12	13	27	84
8. 친환경농업	6	2	8	2	7	6	6	37
9. 농지제도 및 관리	0	0	1	9	0	8	8	26
10. 농업인력 육성	9	0	6	4	7	7	2	35
11.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10	10	8	6	18	17	6	75
12. 농촌특화사업 개발	2	28	5	4	1	8	5	53
13. 영농 기계화	3	9	8	8	3	9	5	45
14.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4	6	9	7	18	6	16	66
15. 가축사육 및 관리	3	9	0	0	0	1	2	15
16. 가축 질병 관리	1	11	0	0	0	2	1	15
17. 농식품 안전·위생 관리	19	6	23	2	17	7	5	79
18. 농축산물 검역	0	5	1	0	0	0	0	6
19. 임산자원 개발	0	10	0	0	0	0	0	10
20. 산림녹화	0	2	0	0	0	0	0	2
계	165	165	165	165	165	165	165	1,155

자료: 저자 작성.

이 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램 20개 가운데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과제와 관련성이 가장 많은 것은 ‘농산물 가공(150점)’이고, 그다음으로 ‘농업생산기반 구축(123점)’이며,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 지도 지원 시스템(109점)’,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102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개발협력 과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벼 가공(건조, 도정) 역량 제고, 농산물 건조, 저장, 포장, 운송 등 물류 시설 확대 인프라 개발 등 두 가지가 ‘농산물 가공’을 통해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8점, 33점). 또한, 농촌, 도로, 전기, 식수 등 생활 인프라, 발작물 관개 인프라 등의 가치사슬 향상은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각각 25점, 49점). 이 밖에 농업의 소득원 개발은 ‘농촌특화사업 개발’을 통해서(28점), 청년 농업인 위주 농업인력 교육훈련센터 설립은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 지도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28점),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 구성은 ‘농업협동조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중점협력 분야의 선정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캄보디아의 농림업 분야 발전과 국가 및 분야별 전략의 실현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도출하였다.

- 가공과 유통 인프라 개발
- 영농 기술 교육 및 지도
-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의 개발협력 경험이 많고, 현재도 우리나라의 여러 정부 기관에서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ODA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선정한 중점협력 분야는 ODA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 기관들이 중점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분야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그 밖의 분야에서도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가공과 유통 인프라 개발’은 벼를 중심으로 하되 채소와 같은 발작물도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판매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 설문조사 결과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등은 가치사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로 나타났고, 7개의 개발협력 과제 중에서도 중요도 순위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우리나라 ‘한국형 ODA 모델’의 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관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 기술 교육 및 지도’는 가치사슬 단계에서는 지원활동에 속하여 ‘R&D’, ‘농민 역량’, ‘지도 사업’ 등과 연결된 포괄적이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가치사슬에서 투입, 생산 단계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긴 하지만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기술’이 매우 중요한 세부 활동으로 나타났다. 청년 농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농업인력 교육훈련센터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는 미래 기술자로서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을 포함한 농업인 전체에 대한 기술 교육과 지도로 확장할 수 있다. 개발협력 과제에서도 중요도 순위가 높아 2위를 차지하였다.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관련이 있는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 지도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있는 분야이다.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화’ 과제는 역시 가치사슬 단계에서 지원활동에 속하나, 가치사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단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협동조합 등 농민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과 유통에서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협력 과제의 중요도로는 네 번째 순위이며, 한국형 ODA 모델의 협력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농업협동조합’ 육성과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 지도 지원 시스템’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개발협력 추진전략

개발협력 추진전략

1. 추진 방향

캄보디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은 캄보디아가 추구하는 국가 전체 및 농림업 분야의 개발전략과 과제 등 개발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 등 개발협력(공급)이 일치하는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시행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 분야들은 국내외 상황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5년 내외의 기간을 대상으로 일관된 목표 아래 사업을 발굴, 기획하도록 지침으로서의 구실을 한다.

한-캄보디아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은 ‘농업의 생산 및 유통에서의 부가가치 증대와 기술 역량의 제고’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3가지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 추진하도록 한다.

2. 세부 추진과제

2.1. 가공과 유통 인프라 개발

2.1.1. 필요성

캄보디아에서는 농산물의 국내 가공이 10% 정도이고, 가공된 농산물의 GDP 비율이 3.4%에 불과하다(ADB, 2019, p.4; 2021b, p.4). 그나마 벼 도정이나 고무, 후추 가공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가공은 미개발된 상태이다. 농업 및 농산업 가공에 대한 투자는 전체의 10% 미만이고 식품 가공업에는 2% 미만에 불과하다(ADB, 2021b, p.4). 또한 도매시장 등 유통과 관련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수확 후 공급 과정에서의 손실률이 10~30%에 달한다(Goletti & Sovith, 2016, p.46). 이와 같은 낮은 가공 수준과 유통에서의 문제점들은 부가가치의 감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농산물 가공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갖는다. 즉, 원료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가공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한다. 때에 따라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비규격품(등외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가공을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식품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허장, 조한슬, 2014, p.1, p.37).

또한 유통은 생산지(생산자)와 소비지(소비자)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에 적합한 형태로 운송함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게 된다. 생산하는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한 캄보디아로서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의 증가, 대외 수출의 확대 등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정부는 시장의 요구와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에 부응하도록 가치사슬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2.1.2. 세부 추진과제

□ 벼 가공시설의 보급과 원예 농산물 가공단지 조성

1970년대, 1980년대 이후 쌀 자급을 확립한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벼 가공 역량을 개선하여 고품질 쌀을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농협과 민간을 중심으로 RPC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시설자금은 정부가 일부 보조 혹은 용자로 지원하였다(허장, 조한슬, 2014, p.21).

캄보디아에도 자국 혹은 중국 등 외국 자금에 의해 많은 도정시설과 DSC, RPC가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벼 생산역량보다 도정 등 가공 역량은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국 내에서 물벼의 건조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벼 이외의 농산물 가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하였던 ‘농어촌 부업 단지 육성사업(1960년대)’, ‘새마을 공장 건설사업(1970년대)’ 혹은 ‘농공단지 개발사업(1980년대)’ 등과 같은 가공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이 사업들은 농촌의 계절적 혹은 상시 유희 인력을 활용하여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혹은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가공, 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은 인프라 등 단지를 조성하고 민간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진흥센터’와 같은 행정, 재정적 지원조직을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 특산물 가공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와 같은 인증 제도를 도입, 적용하기도 하였다(허장, 조한슬, 2014, p.19).

채소나 과일 등 원예 농산물의 가공은 현지 여건에 적합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 장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농가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가시적일 수 있다. 특히 벼 이외의 농산물로 다변화를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캄보디아로서는 원예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확실한 소득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공단지를 설치할 때는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점은 원·부자재와 노동력, 토지 등 생산요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원료 시장, 가공제품 시장과의 수송이 원활한 곳이어야 한다. 그 밖에 용수와 에너지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 적당하다.

농산물 가공의 주체로는 협동조합 등 농민조직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들 조직이 중간상인 혹은 상점과의 마케팅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한다면 가공과 유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농가의 소득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공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마케팅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물류 시설과 장비 및 정보 시스템 등 유통 인프라 구축

유통 인프라 구축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형 도매시장, 중소도시의 중소형 도매시장과 산지 집하시설, 그리고 지역을 연결하는 운송시설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은 채소와 과일 등 원예 농산물의 주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유통을 담당할 중소규모의 도매시장 혹은 산지 집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캄보디아의 가장 큰 도시인 수도 프놈펜에는 노천에서 각종 청과물, 축산물이 유통되는 재래식 도매시장이 있으나, 낙후되고 도심에 위치하여 교통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이전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줄 건조, 저장, 포장, 운송 등 각종 물류 시설과 장비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권역별로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가치사슬 구조를 파악하여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지역 및 국제 시장 정보(도소매 가격 등)의 제공을 위한 유통정보 서비스(Agricultural Marketing Information Services: AMIS)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같은 정보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허장 외, 2017, p.92).

□ 민간부문의 투자 등 참여 확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부터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쌀 가공을 위해서는 건조와 저장시설(Drying and Storage Center: DSC), 종합미곡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 혹은 도정시설이 필요하다. 채소나 과일 등은 신선 청과물 형태가 아니라도 세척, 선별, 건조, 1·2차 가공, 포장 등의 수확 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시설과 장비에 의존하게 된다. 이를 설치하고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적지 않으며, 원료 농산물의 확보와 구매에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시설과 장비의 기술적 운영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에도 전문적 역량을 갖춘 요원이 필수적이다.

이것들은 공공에서 직접 담당하기에는 예산과 인적 자원이 부족하므로 시설, 장비 운용 경험과 자금력이 있는 민간부문이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ODA를 통해 가공시설을 지원하더라도 공여국, 수원국 모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무상원조보다는 양허성 차관으로 추진한다든가, 시설의 운영은 적어도 초기에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영농 기술 교육 및 지도

2.2.1. 필요성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품종, 자재 등을 현장에서 적용할 농업인력을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캄보디아는 국가 및 농업전략을 통해 기술 지도와 보급 서비스,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보급하는 등 농업 생산성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수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 몰려 있는 빈곤층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캄보디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기술 교육과 지도 시스템은 최근 전통적인 공급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 지향적 접근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첫째, 전국, 주(province), 군(district) 단위에서의 농업 분야 개발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기술 지도 보급, 둘째, 기획 역량 제고와 가치사슬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군과 면(commune) 단위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 분권적 서비스의 확대 등이다(ADB, 2021b, p.24).

2.2.2. 세부 추진과제

□ 면 단위 시범 기술보급센터의 조성 및 서비스 확대

캄보디아는 영농 기술 보급 조직이 군 단위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면 기술 보급 센터(commune extension centers)를 설치하는 등 농민에게 밀접하게 다가서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하지만 기술 지도 요원 1인당 5,000명의 농가를 상대하여야 하는 등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ADB, 2021b, p.24).

캄보디아는 농업연구개발연구소(Cambodia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CARDI)와 왕립농업대학(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RUA) 등 대학의 연구소 등 영농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서비스 기능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수립한 국가협력전략(CPS)은 ‘농업 관련 교육과 훈련’, 그리고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농업 분야에서의 중점협력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즉, 농업 분야의 고등교육 기관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와 혁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생산비를 절감하고 우량 종자·종축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농업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기관들의 농업기술 개발·보급 등 생산성을 향상하게 할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우선 시범적으로 주요 작물의 주산단지 혹은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현대화한 면(commune) 단위 기술보급센터를 설치하고, 인근의 국공립 농업연구기관과 제휴하여 영농 기술 지도 및 보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확대를 위

한 영농 기술 교육 및 지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 농업인력의 육성

여기에는 현장에서 기술보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의 농업인력 교육훈련센터 등 시설을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청년 농업인 및 농업기술 개발 요원을 육성하는 등 세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한다. 이처럼 영농 기술에 대한 교육 위주로 하되, 마을개발위원회(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VDC)와 같은 마을 단위 주민 조직 혹은 협동조합을 활용한 생산·유통 조직체의 구축 및 계약영농 등 가치사슬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대한 교육과 시범사업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허장 외, 2017, p.93).

□ 민간부문의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기능 활용

공공부문의 기술 지도 요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은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농가공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대신 재배 품종, 재배 방법 등 농업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지도받도록 하는 것이다.

비료나 농약, 종자, 농기계 등 농자재 공급업체도 이 과정에 참여하여, 고생산성 혹은 고품질 품종과 비료, 농약 등을 패키지로 공급하면서 이에 따르는 영농 기술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2.3.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화 - 협동조합의 육성

2.3.1. 필요성

농민의 조직화는 생산을 효율화하고 유통 및 판매의 조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계약영농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영농기술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전지민, 한상일(2019)은 농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빈곤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한 사회적 지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농민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전지민, 한상일, 2019, p.155). 농림수산부 주도 아래 2003년부터 전국에 375개의 농업공동체(agricultural community)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하여, 약 3만 5,00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주로 쌀 생산과 수출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5년 5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Agricultural Cooperative Law)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농민조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등록, 활동, 역량 개발, 기술보급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15명 이상의 농민 및 농업 분야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담보물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히 쌀 생산과 도정미 수출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²⁴⁾

2019년에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약 1,200개의 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고, 여기에 12만 2,000명(그 가운데 60%는 여성)에 달하는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FAO, IFAD,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들이 협동조합과 같은 농민 조직화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ADB, 2021b, p.25).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캄보디아 내 몇몇 농민들의 협동조합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베이 리엥(Svey Rieng) 협동조합은 농민들 스스로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21273). 검색일: 2022. 9. 27.

채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프놈펜의 식당에 유기농 채소를 공급하고 있다. 잿은 범람으로 물관리에 애를 먹던 캄퐁 프라사트(Kampong Prassat) 협동조합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물 공급 시설을 세우고 씨앗 제공 사업, 바이오 가스 사업, 화장실 개선 사업, 도로 보수, 취약계층 아동 초등교육 무상 제공 등의 매우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들을 수행한다.

박세이 리커레이(Baksei Rikreay) 협동조합은 여성 저축 신용, 유기농 쌀 재배, 어린이 저축 등을 목표로 한 여러 유형의 소모임을 구성, 활성화하고 저축 기금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티파스 폰록 트메이(Tipath Ponlork Thmey)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구성, 정미소를 설립하고 생산된 유기농 쌀을 농민들로부터 구매하여 프놈펜 시장에 판매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들을 수행하였다(전지민, 한상일, 2019).

우리나라는 농협이라고 하는 농민조직이 전국에서 마을(리) 단위까지 조직되어 정부의 정책 사업을 보조하면서 다양한 경제 및 신용사업을 수행해 왔다. 농협은 현재 마을 단위, 즉 리·동 단위에서의 조합(단위조합), 전국 단위에서의 중앙회 등 2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협은 농민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농민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특징을 혼합한 협동조합 모델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즉, 농산물 공동 혹은 대행 판매, 자재의 공동 구매와 배달 및 이용뿐만 아니라, 영농자금 대출 등 신용사업, 조합원 복지를 위한 공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으로서, 근대화 이후 현재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박성재, 2015, p.3).

2.3.2. 세부 추진과제

□ 단위조합의 설립, 육성

캄보디아와 같이 협동조합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마을 단위에서의 생산과 유통을 조직화하여 각종 경제 및 신용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즉, 단위조합 위주의 조직으로 종합농협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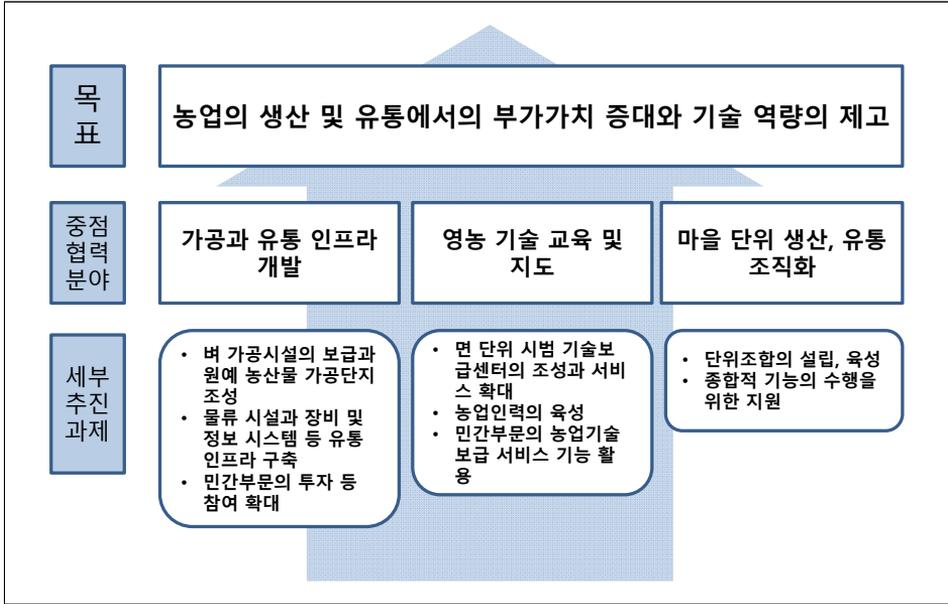
우선 기초조직으로서의 단위조합을 적극 설립,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원칙과 운영에 관하여 교육하고, 적절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설제하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한다. 특히 회계나 감사 등의 관리, 자금 조달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설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박성재, 2015, p.72).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조직체의 구성이 갖는 효용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이다(Goletti & Sovith, 2016, p.17). 농민 조직은 자발성과 참여가 필수이므로 이와 같은 기초적 역량 개발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농민 조직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스스로 진화, 상위조직으로서의 연합회 등 형태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박성재, 2015, p.74).

□ 종합적 기능의 수행을 위한 지원

또한 조합원의 농산물 판매, 생산요소 구매, 각종 생활물자 구매, 창고나 농기계 등의 공동 이용, 신용(은행과 보험)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캄보디아와 같이 반(半) 자급적이고 다품목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소농 경제에 적합한 모형이다(박성재, 2015, p.68).

신용사업의 경우 단위조합이 일정한 수준까지 기반을 갖춘다면, 상호금융 형태로 저축자원을 축적한 뒤 이를 동원하여 영농활동 및 생계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 등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민조직의 자립 의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초기 자금의 지원 등 정부의 지원과 감독을 통한 조합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림 5-1〉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 방향과 중점협력 분야



자료: 저자 작성.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의 정치, 경제적 관계도 깊다. 우리나라 ODA의 중점협력 국가로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를 종합, 연결하도록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캄보디아에 대한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캄보디아는 코로나19로 잠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2년은 반등하여 5%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와 양자(FTA) 및 다자(RCEP)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봉제업, 건설업 등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관광업이 활발하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층 인구가 약 18%에 달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3%가 농업에 종사하며 가구당 평균 1.3ha의 소농 형태로 벼 위주의 농산물을 생산한다. 벼 생산성은 이웃 나라에 비해 낮고, 남은 벼는 상당한 양이 도정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된다. 옥수수는 사료용이 많고 카사바는 주로 수출된다. 채소는 대개 자급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다. 건기 물 공급이 원활할 경우 생산량 확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농업은 특히 작물의 경우 종자 등 투입재 품질이 열악하다. 농산물은 그 품질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벼 건조 및 도정시설, 채소 도매시장 등 가공과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가치사슬 단계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농가 외부 및 외

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생산성(productivity)의 제고, 농업 수익성(profitability)의 향상, 수출 경쟁력(competitiveness) 확보가 과제라고 할 수 있다(Goletti & Sovith, 2016, pp.28-29).

국가전략으로는 4단계 사각전략(RS IV)과 국가전략개발계획(NSDP)이 있고, 농업 부문에는 농업전략개발계획(ASDP), 농업 부문 마스터플랜, 작물생산 마스터플랜, 산업개발정책(IDP) 등이 있는데, 농업발전을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생산 다각화와 기술개발 및 보급, 지도 등을 시급한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ODA는 그 규모가 상당하지만, 농림업 분야는 약 4% 정도에 그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이외에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행정안전부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대한 국가협력전략은 지역(농촌)개발을 중점협력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농업 관련 교육/훈련, 농촌개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농업 가치사슬, 농업 생산 인프라를 세부 분야로 정해 놓았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을 포함하여 ADB, 일본, 프랑스, 세계은행 등이 캄보디아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ADB, 유럽연합, 미국 해외원조처(USAID) 등은 자체적으로 캄보디아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략, 개발협력 현황 등을 검토한 뒤 △ 농촌 도로, 전기, 식수 등 생활 인프라, △ 농업 소득원 개발, △ 벼 가공(건조, 도정) 역량 제고, △ 발작물 관개 인프라, △ 농산물 건조, 저장, 포장, 운송 등 물류 시설 확대, △ 청년 농업인 위주 농업인력 교육훈련센터 설립, △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체 구성 등 7가지를 주요 개발협력 과제로 선정하였다.

캄보디아의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민간업체 등에서 12명의 담당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가치사슬 단계별로는 가공과 판매 등 생산 이후의 단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7개의 개발협력 과제들 가운데에는 농산물 건조, 저장, 포장, 운송 등 물류 시설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위주 농업인력 교육훈련센터 설립, 발작물 관개 인프라,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체 구성 등 순서로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7개의 과제가 ‘한국형 ODA 모델’의 농림업 분야 20개 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볼 때 농산물 가공, 농업생산기반 구축,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 지도 지원 시스템,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등 순서로 깊이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과제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분야를 세 가지, 즉 △ 가공과 유통 인프라 개발, △ 영농 기술 교육 및 지도, △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화로 설정하였다.

가공과 유통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벼 가공시설(건조, 도정시설 등)을 보급하고, 채소 등 원예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물류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정보 시스템을 수립한다. 셋째,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예산과 인적 자원을 충당하도록 한다.

영농 기술 교육 및 지도를 위해 첫째, 캄보디아 면(commune) 단위에 시범적으로 현대적 규모의 기술보급센터를 조성하고, 기술보급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한다. 둘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훈련센터 등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업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셋째, 농산물 가공업체, 농자재 공급업체 등 민간부문의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지도 요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끝으로 마을 단위 생산, 유통 조직화 과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마을을 중심으로 기초조직으로서의 단위조합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 육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농산물 판매 등 영농활동 이외에도 신용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적 기능의 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

이상과 같이 소개한 중점협력 분야는 우리나라가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할 사업 분야로 제안한 것이다.

농림업 분야는 가능한 사업 범위가 매우 넓고 그 성과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주로 농식품부 등 농업 관련 부처와 무상원조 전담 기관인

KOICA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농기계나 농촌개발과 같이 여러 정부 부처가 관여하여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세부 분야도 있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사업의 범위, 다양한 사업 시행기관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조정과 안내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수립의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캄보디아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와 정치 상황의 변동, 우리나라 거시적 개발협력 정책의 수정 혹은 새로운 방향 수립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이러한 중점협력 분야는 바뀔 수 있다. 아울러 여기서 제시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가령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나 초 국경 가축 질병의 발생에 따른 검역 역량의 강화 등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하는 쟁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리고 양국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제시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ODA 사업 목록

〈부표 1〉 물관리 및 보건위생(661.75억 원)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억 원)	'22년 확정액 (억 원)	신규/ 계속	시작 연도	종료 연도	구분 (유무상)
고용노동부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	캄보디아 산업안전 보건 분야 법제도 개선정책 자문	개발 컨설팅	4.1	1.3	계속	2021	2023	양자 무상
고용노동부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	개도국 산재재활 의료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캄보디아)	개발 컨설팅	4.5	1.5	신규	2022	2024	양자 무상
기상청	개도국 기상·기후 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캄보디아 자동 기상관측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36.4	3.0	계속	2019	2022	양자 무상
기상청	개도국 기상·기후 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원(ODA)	캄보디아 천리안위성 2A호 수신·분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29.8	14.0	계속	2020	2023	양자 무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실라타온담 개발사업	프로젝트	410.3	39.6	계속	2015	2022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다운트리엠 개발사업	프로젝트	522.8	39.2	계속	2016	2022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시엠레아프 하천정비사업 2차	프로젝트	148.9	24.9	계속	2018	2023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빈테민체에이 관계 개발 및 홍수 피해 저감 사업	프로젝트	952.62	163.06	계속	2018	2023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타크마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하천정비사업	프로젝트	715.2	108.1	계속	2018	2023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프로젝트	745.3	137.7	계속	2020	2024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청정 시엠레아프를 위한 도시인프라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개발사업	프로젝트	613.0	2.7	신규	2022	2025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다운트리엠 개발사업(보충용자)	프로젝트	223.9	1.5	신규	2022	2022	양자 유상
보건복지부	아시아지역사업	캄보디아 서북부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주요 만성질환 관리 강화사업	프로젝트	100.0	25.0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계속)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억 원)	'22년 확정액 (억 원)	신규/ 계속	시작 연도	종료 연도	구분 (유무상)
보건복지부	아시아지역사업	캄보디아 국립의과 대학병원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	프로젝트	30.0	0.0	계속	2021	2026	양자 무상
광주광역시	대외 인도적 지원 사업추진	아시아(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지원	민관협력	0.5	0.5	신규	2022	2022	양자 무상
세종특별자치시	캄보디아 비탐방주 소방공무원 초청연수	캄보디아 비탐방주 소방공무원 초청연수	연수사업	0.3	0.3	신규	2022	2022	양자 무상
세종특별자치시	캄보디아 비탐방주 불용 소방구급차 양여	캄보디아 비탐방주 불용 소방구급차 양여	기타	0.2	0.2	신규	2022	2022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건강 형평성 및 질 향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80.5	0.0	계속	2017	2022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앙동영 병원 이비인후과(ENT)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90.4	31.5	계속	2018	2022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동북부 소외지역 모자보건 프로그램	프로젝트	77.0	21.8	계속	2019	2023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	프로젝트	101.2	0.0	계속	2020	2025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메콩델타 수자원 관리사업	프로젝트	24.2	9.4	계속	2021	2023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건강 형평성 및 보건의료 질 향상 프로그램 2차 사업	프로그램	113.0	22.4	신규	2022	2027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국립소아 병원 내과계 병동 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프로젝트	180.8	5.0	신규	2022	2027	양자 무상
환경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ODA)	캄보디아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 사업	연수사업	2.8	1.3	계속	2021	2023	양자 무상
환경부	환경산업 수출 기반육성지원	캄보디아 ICT 기반 수자원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개발 컨설팅	8.0	8.0	신규	2022	2022	양자 무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부표 2〉 교통(777.28억 원)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억 원)	'22년 확정액 (억 원)	신규/ 계속	시작 연도	종료 연도	구분 (유무상)
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ODA)	캄보디아 도로 건설 및 관리 체계 현대화 사업	프로젝트	40.0	12.2	계속	2020	2022	양자 무상
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ODA)	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전산시스템 시범구축사업	프로젝트	30.0	13.0	계속	2020	2022	양자 무상
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ODA)	캄보디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마스터 플랜 수립	개발 컨설팅	11.6	0.0	계속	2021	2022	양자 무상
국토교통부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ODA)	캄보디아 Trapeang Srae 국제 통관물류시설 종합계획수립 사업	프로젝트	16.5	2.5	신규	2022	2023	양자 무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2번 22번 국도 개보수 사업	프로젝트	628.0	207.7	계속	2017	2022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48번 국도 개보수 사업	프로젝트	754.9	192.1	계속	2018	2022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기후 탄력적 농촌 인프라 개발사업	프로젝트	638.1	185.0	계속	2021	2026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민간 국제기구협력 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3차	프로젝트	671.7	112.2	계속	2020	2023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48번 국도 개보수 사업 (보충 용자)	프로젝트	223.9	36.8	신규	2022	2024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아시아차관(양자) (ODA)	캄보디아 청정 시엠레아프를 위한 도시 인프라 (우회도로 건설) 개발사업	프로젝트	736.4	3.3	신규	2022	2025	양자 유상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협력국 긴급 요청 사업) 캄보디아 교통량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수립	개발 컨설팅	3.8	1.1	계속	2021	2022	양자 무상
해양수산부	연안국과의 협력 (ODA)	캄보디아 내륙수로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수립	개발 컨설팅	23.8	11.4	계속	2021	2022	양자 무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부표 3〉 교육(186.51억 원)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억 원)	'22년 확정액 (억 원)	신규/ 계속	시작 연도	종료 연도	구분 (유무상)
고용노동부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	개도국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역량 강화 (캄보디아)	프로젝트	30.0	7.0	신규	2022	2024	양자 무상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개도국 교육방송 구축운영 (캄보디아, ICT/미디어 기반 모바일 교육방송 신규구축 및 운영)	프로젝트	98.8	49.0	계속	2020	2022	양자 무상
교육부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ODA)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캄보디아_덕성여대)	민관협력	17.3	4.3	계속	2020	2024	양자 무상
교육부	이러닝 세계화	ICT 인프라 지원 및 교원연수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_캄보디아)	프로젝트	11.8	0.9	계속	2020	2024	양자 무상
교육부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ODA)	UNESCO UNITWIN 지원 사업(한동대) - 캄보디아 대학과 공동교육과정	민관협력	16.6	3.5	계속	2020	2024	양자 무상
교육부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ODA)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캄보디아_서울시립대)	민관협력	17.2	4.2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교육부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ODA)	UNESCO UNITWIN 지원 지원사업 (숙명여대_캄보디아)	민관협력	10.8	0.6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교육부	이러닝 세계화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연수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_선도교원초청 연수 및 인프라 지원_캄보디아)	연수사업	0.9	0.9	신규	2022	2022	양자 무상
교육청	이러닝 세계화	ICT인프라 지원 및 교원연수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선도교원초청연수 및 인프라지원_캄보디아)	연수사업	1.9	1.9	신규	2022	2022	양자 무상
국무조정실	국제기술혁신 협력사업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캄보디아)	개발 컨설팅	5.1	1.5	계속	2020	2020	양자 무상
국무조정실	캄보디아 국가 정책연구 역량 강화 사업	캄보디아 국가 정책연구 역량 강화사업	프로젝트	20.0	4.3	신규	2022	2026	양자 무상
문화체육 관광부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프로젝트	70.5	21.4	신규	2022	2024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산학연계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체계 구축 사업	프로젝트	87.0	24.1	계속	2019	2024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지역농산물 활용 학교 급식 사업 (WFP)	프로젝트	119.0	24.8	계속	2020	2024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중학교 ICT 교육 역량 강화사업	프로젝트	84.7	22.9	계속	2021	2026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환경융합 공과대학 원 설립 사업	프로젝트	83.5	15.3	계속	2021	2026	양자 무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부표 4〉 지역개발(87.94억 원)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억 원)	'22년 확정액 (억 원)	신규/ 계속	시작 연도	종료 연도	구분 (유무상)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캄보디아 영농 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사업	프로젝트	41.7	3.0	계속	2017	2023	양자 무상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캄보디아 크라티에 영농센터 지원사업	프로젝트	37.9	10.5	계속	2020	2024	양자 무상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캄보디아 산지지역의 고부가가치 채소 생산 및 가치사슬 개선	프로젝트	57.2	17.9	계속	2021	2024	양자 무상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캄보디아 칸달주 고품질 채소·과채류 스마트팜 사업	프로젝트	49.2	8.5	계속	2021	2024	양자 무상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력 (ODA)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 성과 확산사업-캄보디아 통합적 농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	개발 컨설팅	3.0	3.0	신규	2022	2022	양자 무상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캄보디아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 (KOPIA) 3차 사업	개발 컨설팅	55.0	14.4	계속	2020	2024	양자 무상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공적개발원조 (ODA)	캄보디아 에코투어리즘 조성사업	프로젝트	42.8	15.2	계속	2021	2024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캄보디아 (ODA)	캄보디아 농촌종합 개발을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	프로젝트	113.0	8.5	신규	2022	2026	양자 무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강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 (캄보디아)	개발 컨설팅	14.4	4.8	계속	2021	2023	양자 무상
행정안전부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및 관리	프로젝트	13.6	2.2	신규	2022	2026	양자 무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부표 5〉 기타(비중점)(75.52억 원)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억 원)	'22년 확정액 (억 원)	신규/ 계속	시작 연도	종료 연도	구분 (유무상)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프레이피투 사원과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 2차 사업	프로젝트	77.0	12.8	계속	2019	2023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ODA)	캄보디아 인권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사업	4.8	0.8	계속	2020	2022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캄보디아(ODA)	캄보디아 북서부 3개 주 지뢰 제거를 통한 평화마을 조성사업	프로젝트	121.0	30.0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ODA)	캄보디아 지방공무원 인적 자원 개발	연수사업	5.9	0.8	계속	2021	2023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ODA)	캄보디아 국립외교국제관계 교육원 교사역량 강화	연수사업	4.07	0.8	신규	2022	2024	양자 무상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ODA)	캄보디아 법원 행정 역량 강화	연수사업	4.8	0.8	계속	2021	2023	양자 무상
경찰청	국제치안 활동 강화(ODA)	캄보디아 경찰 무도교관 역량 강화 사업	연수사업	3.9	1.7	계속	2021	2023	양자 무상
관세청	개도국 관세 행정 현대화지원	캄보디아 관세행정 심화 연수	연수사업	0.4	0.4	신규	2022	202	양자 무상
국토교통부	국제개발 협력사업지원 (ODA)	캄보디아 공간정보 인프라 기본데이터 시범구축사업	프로젝트	35.0	0.0	계속	2020	2022	양자 무상
기획재정부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캄보디아와의 KSP Plus (1차년): 효율적인 고체 폐기물 처리 방안	개발 컨설팅	4.3	3.0	신규	2022	2023	양자 무상
기획재정부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정책 수립	개발 컨설팅	3.8	1.1	계속	2021	2022	양자 무상
법무부	국제 마약 퇴치 지원사업	캄보디아 마약통제 역량 강화 사업	프로젝트	3.8	3.8	신규	2022	2022	양자 무상
법무부	개발도상국 법제 정비지원사업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사업 (캄보디아)	개발 컨설팅	10.0	1.6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 협력 개발지원	캄보디아 섬유 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 기술 지도(TASK)	연수사업	12.0	5.0	계속	2021	2023	양자 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 협력 개발지원	캄보디아 식품가공 분야 생산기업 현장 애로 기술 지도(TASK)	연수사업	12.0	5.0	계속	2021	2023	양자 무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 협약 대응 한-개도국 협력 (ODA)	에너지 정책 컨설팅 지원사업(캄보디아 태양광 활용 전기 이륜차 활성화 플랜 수립 및 역량 강화)	프로젝트	11.3	2.2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납부(ODA)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 (ECCC) 사업분담금	프로그램	0.0	5.7	계속	2006-		다자성 양자 무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 관계부처 합동. (2022).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 관계부처 합동. (2020).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 김동환. (2016). “개도국 농업발전을 위한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전략: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과학 연구. 제14권 제4호. pp.127-134.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7). 주요 국가별 쌀 산업 현황.
- 박성재. (2015).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년도): 농업협동조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윤아, 김미림. (2017). 캄보디아의 수출다변화 추진정책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부. (2019). 캄보디아 개황.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 전지민, 한상일. (2019). “캄보디아 농업협동조합의 발전과 혁신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협동조합학회.
- 정도원. (2020). “COVID-19로 인한 캄보디아 농업 현황과 전망.” 해외농업 Journal. Vol.25.
- 정도원, 최종산. (2015). “캄보디아 주요 발작물의 생산 현황과 한국-캄보디아 협력 방안.”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7(1).
- 조선미. (2019). “캄보디아의 산림업 현황과 개발수요.” 세계농업. 제230호(2019년 10월).
- 조선미, 허장. (2020). “캄보디아 채소산업 현황.” 세계농업. 제236호(2020년 7월).
- 주동주, 문종철, 신윤성, 안옥윤, 윤정현, 강지현, 차문중, 강우진, 김대용, 우혜영, 정세린, 김지원, 박예린, 이종현, 권율, 박수경, 이주영. (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 I. 총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2a). “캄보디아 뉴스.” 프놈펜 무역관 뉴스레터(2022. 4. 18.).
-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2b). “캄보디아 경제동향.” 프놈펜 무역관 뉴스레터(2022. 2. 7.).
- 최정만, 김종선. (2020). “캄보디아 가축질병 대응 정책.” 세계농업. 제237호(2020년 9월).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 메콩강 유역 산림협력사업 평가를 통한 차세대 협력사업 확대방안 연구. 산림청.
- 한국수출입은행. (2022). 세계국가편람.
- 허장, 석현덕, 차원규, 이윤정, 정동열. (2018).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 전략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장, 이대섭, 김종선, 김윤정, 최민정, 조선미, 안규미. (2017).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국별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장, 조한슬. (2014).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 연구-농산물 가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jmani, Manmeet, P. K. Joshi, Devesh Roy & Renjini VR. (2019). “Assessing Agricultural Market Integration of Cambodia within and beyond ASEAN.” IFPRI Discussion Paper 01845.
- Asian Development Bank(ADB). (2021a).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1 Update. Asian Development Bank.
- Asian Development Bank(ADB). (2021b). Cambodia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and Rural Development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 Asian Development Bank(ADB). (2019).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ambodia, 2019-2023, Inclusive Pathways to a Competitive Economy. Asian Development Bank.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2021). ASEAN Key Figures 2021.
- European Commission. (2021). EU-Cambodia 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me 2021-2027.
- General Directorate of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2020). Consolidated Annual Report on Animal Health and Production for 2019 and Directions for 2020. Kingdom of Cambodia.
- Goletti, Francesco & Sin Sovith. (2016). Development of Master Plan for Crop Production in Cambodia by 2030, Final Report.
- Grimsditch, Mark. (2017). Chinese Agriculture in Southeast Asia: Investment, Aid and Trade in Cambodia, Laos, and Myanmar. Heinrich Boll Stiftung.
- Kingdom of Cambodia. (2019). Cambodia Inter-Censal Agriculture Survey 2019.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AFF). (2020). Agricultural Sector Master Plan 2030.

-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AFF). (2015). MAFF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0.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NIS). (2020).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2019/20.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NIS). (2021). Statistical Yearbook of Cambodia 2021. Ministry of Planning.
- Ministry of Planning. (2020). Report of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2019/20.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RGC). (2020).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Report.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RGC). (2019a). Development Cooperation & Partnerships Strategy 2019-2023.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RGC). (2019b).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9-2023.
- Royal Government of Cambodia(RGC). (2015). Cambodia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2015-2020.
- Sophea, Kean. (2018). “Value Chain Analyses of Cabbage in Cambodia.” Presentation at the KAPEX Meeting in Phnom Penh(May 2, 2018).
- United Nations(UN). (2020). UN Cambodia Framework for the Immediate Socio-Economic Response to COVID-19.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 (2020).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 Vichet Sorn. (2018). A Project towards Establishment of Demonstrative Vegetable Production Complex in Cambodia. 2018년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업성과 확산사업 (KAPEX) 공동조사결과보고회의 발표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MERiCs(<https://www.emerics.org:446>). 검색일: 2022. 8. 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28941&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

- ea=2¤tPage=1&pageCnt=10). 검색일: 2022. 8. 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26037&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2¤tPage=1&pageCnt=10). 검색일: 2022. 8. 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systemcode=03&brdctsNo=325432&mid=a10200000000>). 검색일: 2022. 8. 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s://www.emerics.org:446/aif/issueDetail.es?brdctsNo=336568&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2¤tPage=1&pageCnt=10). 검색일: 2022. 10. 5.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21273). 검색일: 2022. 9. 27.
- 외교부(<https://www.mofa.go.kr/>). 검색일: 2022. 8. 4.
- 외교부(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29>). 검색일: 2022. 8. 4.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https://overseas.mofa.go.kr/kh-ko/index.do>). 검색일: 2022. 8. 4.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29). 검색일: 2022. 8. 4.
- 캄보디아 인권 촉진 및 지킴 동맹(Cambodian League for the Promotion and Defense of Human Rights) (https://www.licadho-cambodia.org/land_concessions/). 검색일: 2022. 8. 19.
- 한국국제협력단(https://www.koica.go.kr/koica_kr/8131/subview.do/). 검색일: 2022. 8. 7.
- 한국무역협회 K-stat(<https://stat.kita.net/>). 검색일: 2022. 8. 5.
- Green blog(<https://greenblog.co.kr/2020/09/15/%EC%BA%84%EB%B3%B4%EB%94%94%EC%95%84-%EC%A7%80%EB%8F%84-4%EA%B0%80%EC%A7%80-%EC%A2%85%EB%A5%98-%EB%AC%B4%EB%A3%8C-%EB%8B%A4%EC%9A%B4%EB%A1%9C%EB%93%9C/>). 검색일: 2022. 8. 9.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https://www.imf.org/en/Countries/KHM>). 검색일: 2022. 8. 5.

- OECD.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8. 8.
-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 8. 5.
- WITS(<https://wits.worldbank.org/>). 검색일: 2022. 8. 5.
-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WITS)(<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KHM/Year/2019/TradeFlow/EXPIMP/Partner/by-country#:~:text=Cambodia%20trade%20balance%2C%20exports%20and%20imports%20by%20country&text=In%202019%2C%20Cambodia%20major%20trading,Japan%20and%20Other%20Asia%2C%20nes>). 검색일: 2022. 8. 5.
-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country/cambodia>). 검색일: 2022. 8. 5.
- The Phnom Penh Post(<https://www.phnompenhpost.com/business/cambodias-q1-trade-volume-hits-over-13b>). 검색일: 2022. 8. 7.
- Khmer Times(<https://www.khmertimeskh.com/501057807/cambodia-vietnam-bilateral-trade-remained-steady-at-9-billion-in-2021/>). 검색일: 2022. 8. 7.

KREI

www.krei.re.kr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캄보디아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Cambodi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